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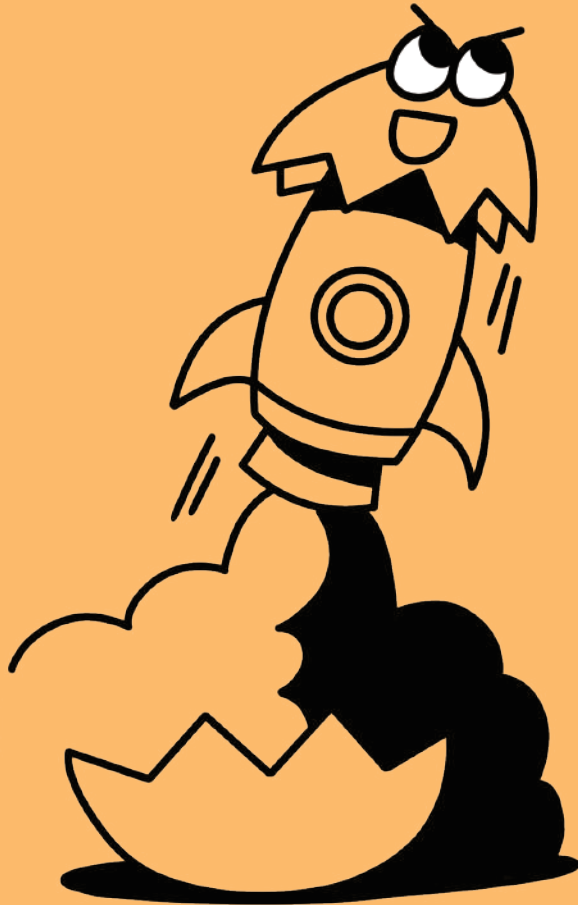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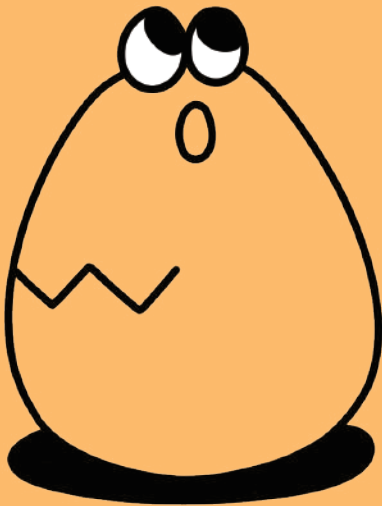
2024.  
June  
vol.466

—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

06

상상력

Slaa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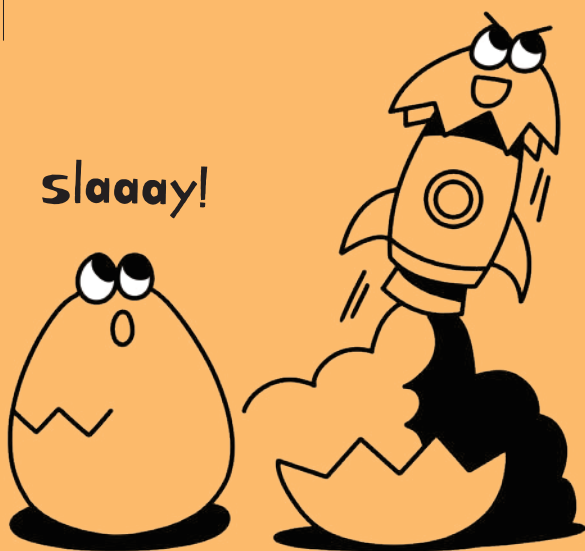


IBK MAGAZINE

with IBK | with WM | with 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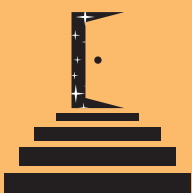
# Fancy

slaaay!



오늘을  
어제보다

더 즐겁게  
만드는 비결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

---

---

**IBK가 존재하는 이유**

# Contents

2024. June  
vol.466

내면의 힘(력)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을 나누는  
IBK 시너지, 여섯 번째

## 상 상 력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6월 3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김태경  
편집위원 |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 에세이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12

### IBK 양케이트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10년 후, 나의 모습은?

20

### 타인의 생각

상상과 가장 가까운 순간,  
우리는

26

### IBK가 만나다

물음표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으로 해독하다  
미술사 최현우

32

### 체크리스트

번뜩이는 아이디어  
나의 상상력 지수는?

34

### IBK드끼

내 누군지 아니?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그까지 알아야 되니?  
⑥ 인천 편 중화루

40

### 그곳에 가면(국내)

젊은 화산섬의 속살을 만나다  
울릉도

46

### 그곳에 가면(해외)

더딘 시간 속, '힐링의 땅'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52

**IBK산 ⑥**

금오산 정상에서 낭만을 외치다  
‘낭만 6총사’의 금오산 산행기

60

**IBK버킷리스트**

컬러도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나의 취향 담은 커스텀 운동화

66

**IBK동호동락**

배트에 맞은 야구공처럼 더 높이! 더 멀리!  
IBK동호회 ‘IBK Win-Wings’

72

**그때 그날 한 컷**

6월에 일어난  
이야기

74

**헬스 케어**

당 떨어진다~  
이 느낌 착각일까?

76

**요즘, 시선**

크면 클수록 좋지 아니한가!  
거거익선의 시대

80

**IBK 히어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 고객가치 창출  
IBK중국유한공사

92

**히든챔피언**

좌절과 포기 없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삼이씨앤지 정효선 회장



98

**당신의 품격**

우리는 지금 모래내 블루스로 힐링 중!  
(주)에스엠코프 김승민 대표

104

**창공, 날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IBK창공 기업  
에임스, 유니유니, 데이터몬드, 브이유에스

108

**잡학 사전**

팔 주사와 엉덩이 주사,  
왜 맞는 부위가 다를까?

188

**우리말 한 걸음**

여기에 ‘스’ 들어가는 거  
맞아요?

190

**HOT Issues**

기계거래가 어렵다고요? 천만에!  
「기계거래BOX」와 함께 하세요

192

**IBK뉴스**

IBK기업은행  
주요 소식

194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97

**부록**

집안 곳곳 숨어있는  
불쾌한 냄새를 잡아라!



# Contents

## with WM

112

### ISSUE BRIEFING 1

정부 해상수송력 확충 방안의 배경과  
경제적 파급효과

118

### ISSUE BRIEFING 2

음악과 기술의 융합  
'버추얼아이돌'이 뜬다!

124

### GLOBAL TOPIC

이란-이스라엘 상호 타격과  
주요 원자재 가격 전망

128

### TAX GUIDE

상속을 대비한다면  
'유언대용신탁' 고려는 필수!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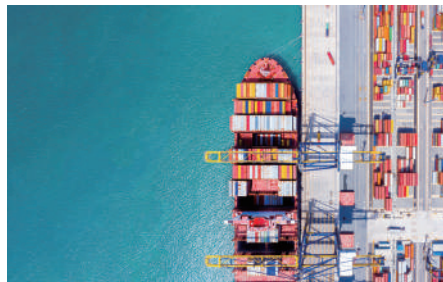
### CHANGING SYSTEM

'양극화 시대'  
아파트 전세가 선도한다

136

### CLASSIC CLOUD

르누아르  
'몰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 Contents

## with 은퇴

142

### 느림의 미학

아주 좋은 기회의 시대  
'슈퍼 에이지' 시대가 온다

148

### 마켓 이슈

시 금융 시대,  
혁신과 그림자 사이

154

### 건강코칭 닥터

보이지 않기에 관리가 중요한 위  
위 건강의 적신호, 위궤양 파헤치기

160

### 글로벌 트렌드

공간 컴퓨팅이 가져올  
금융 경험 혁명

166

### 은퇴 다이어리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금융자산 활용법

172

### 재무설계 플랜

100세 시대!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

176

### 슬기로운 취미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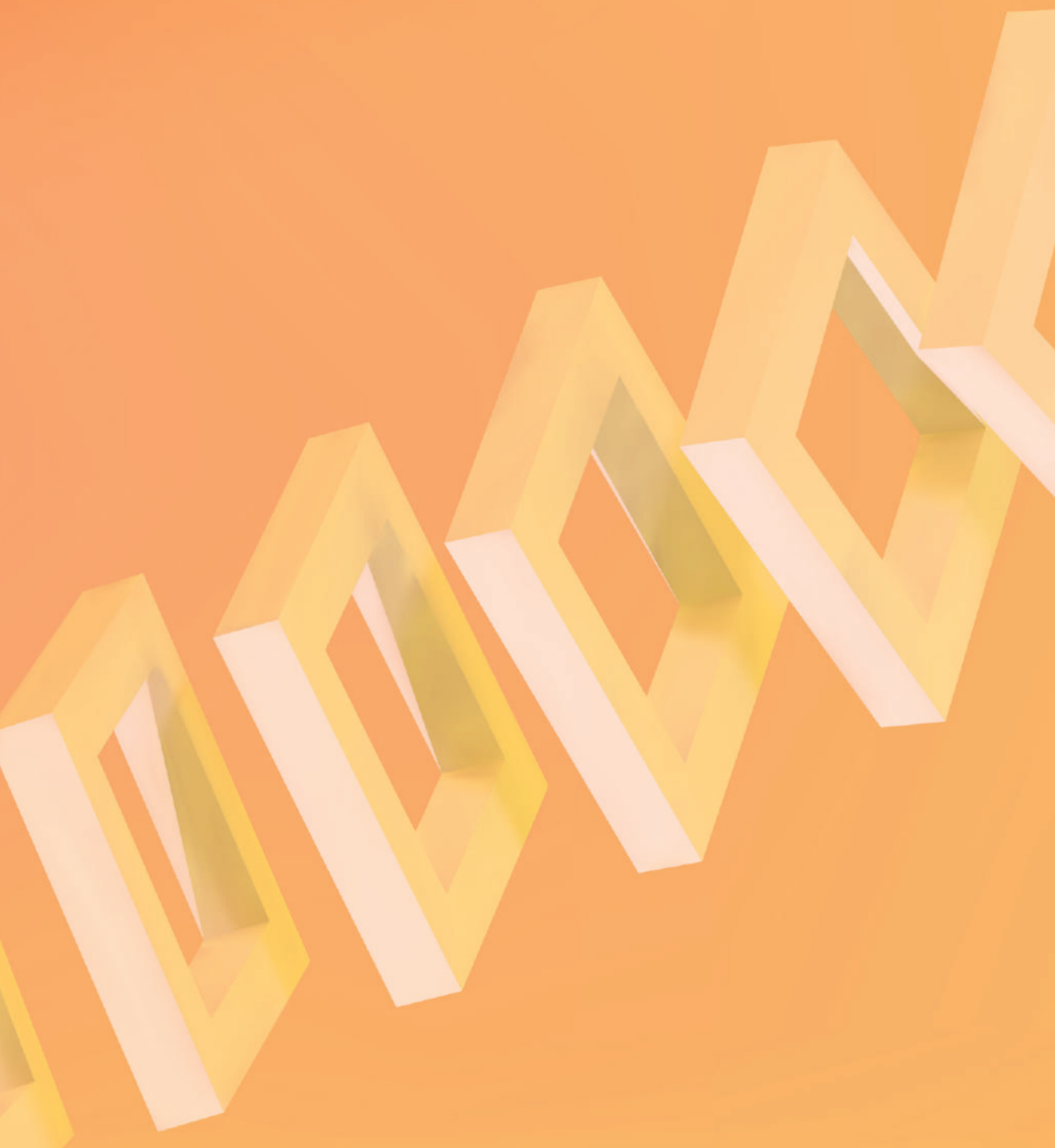
지금 먹어야 제격!  
스스로를 보살피는 한 끼

182

### 컬처 스토리

다이어트의 변천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트렌드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 존 레논(John Lennon) -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면  
그 이면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이든 열고, 깨뜨리면  
무한한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 10년 후, 나의 모습은?



**Free 그리고 Rich 32.3%**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많은 IBK인들이 영앤리치는 아닐지라도 프리앤리치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헛바퀴처럼 굴러가는 직장생활을 벗어나 먹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놀고 있는 내 모습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갖생!



**Dreams come true 25.5%**

사실 난... 배우가 꿈이었어! 10년 후 중년 배우가 된 IBK인도 있고, 퇴직 후 라이브카페를 오픈해 기타 치는 멋쟁이 사장님이 된 IBK인도 있고, 시니어 스크린골프 선수와 시니어 모델, 제주도 스테이 주인이 된 IBK 인까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꿈은 이루어진다! 10년 후 꿈을 이룰 IBK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여유로운\_삶 #해외여행 #로또\_당첨\_기업은행\_VIP

#퇴직\_후\_새로운\_삶 #브라보\_마이\_라이프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상상 속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은가! 풍부한 상상력으로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말해 준 IBK인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IBK인에게 물었다.



**워커홀릭 IBK** 23.7%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즐거운 워커홀릭 IBK인들!? 상상 속에서도 IBK기업은행 안에서 커리어를 쌓고, 승진을 하고, 멋지게 일하고 있는 IBK인들도 많았다. 과장, 지점장, 책임자가 되어 미래 IBK기업은행을 이끌 주역이 된 사람들!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IBK인들 모두 칭찬해~!

#PB전문요원 #금융전문가 #IBK로\_성공한\_커리어



**지금보다 Level up!** 18.6%

세계 6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짱 아줌마가 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하고 아직 운전이 무서운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자신의 모습까지!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말해준 IBK인들. 지금부터 꾸준히 하다 보면 10년이 되기 전에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자기관리 #목표\_달성 #성장한\_내\_모습

# 10년 후 중년 배우가 된 나의 모습이요 ㅋ

#남대문지점 고인실



지금도 살짝 보이는데 쌍꺼풀이 점점  
깊어지는 게 오늘 런치타임 때 지나가는  
분들이 “어머 최명길 씨 닮았다!” 하시는  
겁니다. 전 꽃중년의 PB전문역이니  
WM센터에 포르쉐를 끌고 멋진 스카프  
두르고 출근해 보렵니다. 인싸팀장이 되어  
있겠네요^^  
#삼성동지점 김영은



어느 조그만 호숫가 근처에서  
작은 커피숍 운영  
#순천향대천안병원출장소 박은희



임피에 들어간 나는  
퇴직을 대비해 오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는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산성석지점 유관현



첻바퀴처럼 굴러가는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전시 관람도 하고  
마음 내키면 훌쩍 떠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 있는 삶  
#송현동지점 권정자

스마트한 날씬 곰들  
금융전문가!!  
이정우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수안역개인스마트지점 이정우

53세 베이비페이스  
글로벌금융전문가



10년 후에도 시니어프로팀으로!  
여전히 함께하는  
IBK 축구동호회 레반 멤버들!  
#서여의도지점 정재웅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집에서 나만의  
먹거리 농사와 함께 사계절 나물을  
채취하면서 쉬고 싶다. 집도 지어놨고 밭도  
500평 있고 구년째 주말 농사 열심히 짓고  
있고 마을 주민으로 대우도 받고 있다.  
그동안 행복을 팔아서 돈을 샀다면 앞으로  
돈을 팔아서 행복을 사겠다.  
#부천기업스마트지점 정길웅





**100대 명산 및  
국립공원  
(인솔)봉사요원!  
백두대간  
(매년)종주!**  
#1BK컨설팅센터 이기영

기업팀 팀장으로서 우량한 기업체 고객을  
유치하여 환상의 팀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출장소 이치호



세계 6대 마라톤 풀코스 완주! 올해 생애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 후 세계 6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끝까지 걸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세계 6대 마라톤(도쿄, 보스턴, 시카고,  
뉴욕, 런던, 베를린)을 완주해서 식스스타  
피니셔가 될 것입니다!  
#직원행복부 유용만

저출산이 문제인 지금 자녀들을 올바르게 결혼시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며 틈틈이  
차 한잔 마시면서 독서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고척동지점 이선옥



38년의 고단했던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꿀 같은 국민연금  
받으면서 이제 익숙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 행복하다!  
#염창동지점 조영미



은퇴 후 세계여행을  
하며 전문도 넓히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내 모습. 잘살았다,  
훌륭해~~♡♡  
#문래중앙지점 이미혜



2034년! 제가 퇴직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진작 준비하고 있으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겠죠? 탄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펜션 사장님이  
돼서 스킨쿠버를 가르치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재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는  
결혼식신랑 입장 소리를 들을 때부터!  
#대림동지점 윤동근

10년 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 아줌마가 된  
나의 모습  
#IT금융개발부 허소영





일과 삶을 모두 즐기는  
행복한 기은인~~~  
사진은 다시 여행  
가고 싶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여의도IFC지점 김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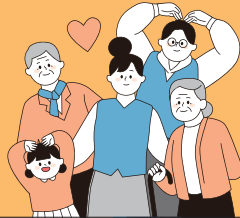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가산테크노지점 전병구



**어느덧 70이 되었네.. 기은 퇴직 후 제2의  
인생 시작으로 창업한 노인재가복지센터가  
탄력을 받아 매일  
바쁘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네. 굿~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역곡지점 양정인



**열심히 직장만 다니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아무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나!!!!**

#제천지점 김진혁



**퇴직 후 라이브  
카페를 오픈해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멋지게 노후를  
보낼 것이다.**

#상상디지털밸리지점 박하영



과 장 정



**책임자가 되어 직원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여전히  
열심히 은행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학지점 정수경



**어느새 중학생 자녀의  
아빠가 되어있는  
재용아! 고생했다.  
자녀도 다 컸으니,  
아내랑 해외여행  
다녀와라!**

#기업디지털사업부 황재용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외면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 부지런히 홈트를 해서  
단단한 나를 만들 거예요~ 11자 복근 & 각진  
어깨 그리고 미녀들 사이에서 래쉬가드 벗고  
당당히 원피스 수영복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사진속 래시  
가드에 모자 쓴 중마가 저인 건 안 비밀~)

#영통구청출장소 김은미







10년 후 나는 임금피크제 기은인이 되어있을 것이며, 우리 아들, 딸이 연애 또는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겠다. 임금피크제 교수님으로 퇴직을 준비하며 제2의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혁신부 이해진



드디어 50...! 은행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에 10년 후도 기업은행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지금보다 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가득하며 나 자신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지점 표정화

## 포르쉐 911 GT3를 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차재원



911 GT3

## 저 로또 당첨 돼서 기업은행 VIP 고객이에요!!

#강남대로지점 주하영



내 주변을  
잘 살려주세요  
지금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듯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상이  
10년 후에도 변함없으면  
좋겠어요.

#평촌아크로타워지점 김선명

## 시니어 스크린골프 선수

#명동역지점 정한솔



일도 열심히,  
취미생활인 등산도  
열심히!!! 한국  
100대 명산 모두  
오르기!!!

#칠곡지점 장운희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며..^^  
PB전문요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포지점 국나영



**시니어 모델**

#IBK고객센터 박정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지낼 것이다**

#용산중앙지점 김지성



**건강한 몸과 마음!  
꾸준히 운동하며  
자기관리하는  
나^^**

#죽전지점 정영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

#김포지점 이혜민

**건물 하나 매입해서 임대업하며 내가 사는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네요^^**

#워커힐지점 정소영



**제2의 인생,  
퇴직 후  
새로운 사업!**

#역삼WM센터 신은혜



**제주도 스테이 주인.  
땅은 이미 구매했음!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내가, 한 채는  
손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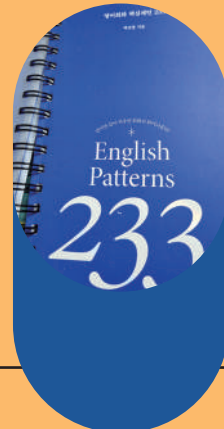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334**

#프로세스혁신부 조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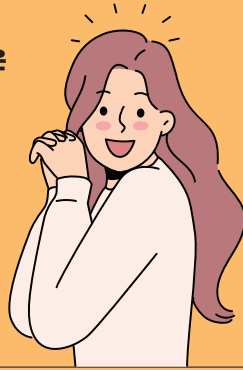


**외국인과  
자연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나! 자유롭게  
프리토킹~!!!**

#가산테크노지점 최성희



나이 들어서 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사람,  
꿈임없이 도전하고  
세상을 포근하게  
바라보는 사람  
#수지동천역지점 김민정



건물주!!!!!! 기업은행  
고배당주 배당만  
월 천의 삶?  
(사진은 이글과 무관  
참고용)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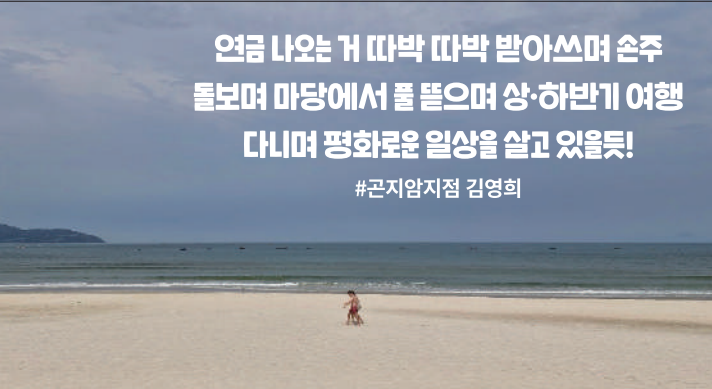


유난히 운전을  
힘들어하는 나. 그때쯤엔  
무인항공기를 타고 다닐  
수도? 격지점포도 무섭지  
않다!  
#녹산공단기업금융지점 강동희

성공한 커리어와  
여전히 멋진 스타일을  
가진 중년의 '섹스  
앤 더 시티'의 세  
주인공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청주지점 이경아



연금 나오는 거 따박 따박 받아쓰며 손주  
돌보며 마당에서 풀 뜯으며 상·하반기 여행  
다니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을듯!  
#곤지암지점 김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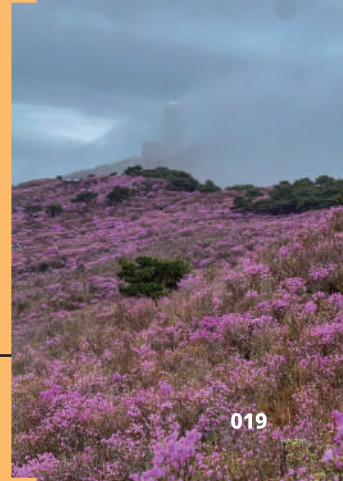
대학생이 된 아들과  
다정하게  
사진 찍을 것이다  
#영통구청출장소 김정선



일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42.195K//  
마라톤 완주한 미래 마라토너!  
#시흥유통센터지점 백민



10년 후 나는  
지금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김포통진지점 한정란



상상과  
가장 가까운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다. 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순간들. 하지만 진짜 쉬고 있을 때,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일까? 상상 속 장면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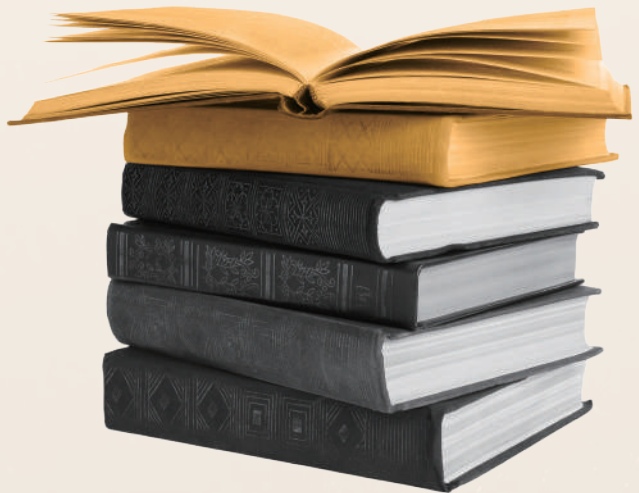
*Imagination*

시레토코의  
첫인상은 이랬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나 여기  
살아볼까?”라고 할  
만한 곳.

### 기다리던 시레토코와의 조우

기억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일본 홋카이도 시레토코에 흘러있었다. 그 고장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레토코에는 아무르 강의 유빙이 흘러온다.” 아무르 강과 유빙. 이 두 단어 모두 신비롭고 멀게 느껴졌다. 소문에 따르면 유빙에는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에 덧붙여지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 유빙에 일몰이 비치면 유빙은 보라색, 푸른색으로 물들고 그 유빙 앞에서 사랑을 맹세한 연인들은 결코 사랑 때문에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레토코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위태로운 약속의 장소였다. 시레토코는 어떤 곳일지 상상만 하고 살다가 시레토코의 수의사 다케마즈 미노루가 쓴 <숲 속 수의사의 자연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다케마즈 미노루의 책에도 유빙 이야기가 나온다. 책에 따르면 해가 떨어지면 바닷가는 푸른색 유빙들로 덮인 사파이어의 바닷가가 된다. 다케마즈 미노루의 책을 읽으니 더욱 시레토코에 가보고 싶었다. 2017년 여름, 나는 마침내 시레토코로 향했다.

시레토코의 첫인상은 이랬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나 여기 살아볼까?”라고 할 만한 곳. 시레토코는 고독이 환영받을 만한 곳,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전히 자기만의 시간과 이야기를 가진 호젓한 곳이었다. 내가 묵던 호텔에서는 창문만 열면 바로 오호츠크해를 볼 수 있었다. 여름이라서 유빙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책 때문에 겨울의 유빙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밤에 본 오호츠크해는 검고도 한없이 깊은 푸른색이었다.





### 지구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호텔 8층에 있는 온천장에서 온천을 즐길 때는 눈앞에 실 새 없이 제비와 갈매기가 날아다녔다. 나는 고래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맥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일몰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주로 바다와 새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많은 것을 모르는 나지만 새들이 아름답다는 것만은 안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위를 약간만 높게, 약간만 자유롭게 떠다니고 싶다. 어쨌든 그 계절에 하늘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각자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는 중인 생명들의 에너지로 가득했다. 나는 지구에서의 삶을 좋아한다. 지구는 매일 매일 내게 푸른 하늘과 커다란 구름을 안겨준다.

그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아름답다.” 그다음에 자조 섞인 한 문장이 짹째 따라붙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네.”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저물어가는 하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애수에 젖어서, 쓸쓸한 기분으로 맥주나 한잔하러 가면 딱 좋을 순간에, 잘 준비를 하러 날아가는 제비를 향해 팔을 길게 뻗는데 느닷없는 말 한마디가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다.

Aesthetics



나는 지구에서의 삶을  
좋아한다. 지구는  
매일 매일 내게 푸른  
하늘과 커다란 구름을  
안겨준다.



“나도 좋은 일 좀 해야겠어!” 내가 말하고도 내가 놀랐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따져보니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날 낮에 본 갈매기 한 마리다. 다른 갈매기는 모두 날개가 두 개인데 그 갈매기만 날개가 하나였다. 태어날 때부터 없었을까? 다쳤을까? 혹시 동물보호센터에 데려다줘야 할까? 야생에서 무사히 살 수 있을까? 그 날개가 하나뿐인 갈매기가 나에게 좋은 일 좀 해보라고 시킨 것 같았다.

### 세스 노터봄을 만나고 달라진 삶

나는 실제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내가 시레토코에 다녀온 이듬해부터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기후 위기와 여행을 한 번도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행이 점점 덜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것을 보러 여행을 가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어찌면 중단 말인가.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지!”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던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엄청난 결심을 했다. 물론 여행은 가고 싶었다. 여전히 다른 곳이 궁금했다. 여전히 보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여행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세스 노터봄이라는 놀라운 여행작가를 발견했다. 내가 처음 읽은 세스 노터봄의 책은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책이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의 시간을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애감없이 쓴다. 그는 쓰러져가는 성당의 돌기둥, 닳아빠진 돌계단 하나만 봐도 이야기를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는 초능력자다. 뭘 말하든 말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나에게 이상적인 인간이다. 내가 백 번쯤 죽었다 깨어나면 어찌면 세스 노터봄처럼 볼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삶으로는 불가능했다. 차라리 세스 노터봄이 영원히 스페인을 걷는 것을 꿈꾸는 것이 낫다.



### 곰씹을수록 모든 순간이 즐거움이다

나는 세스 노터봄에 굶주렸다. 그래서 그의 다른 책 <유목민 호텔>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어느 잡지사에서 “노터봄 씨, 당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호텔은 어디예요?”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 질문을 받은 노터봄은 우선 자신이 가본 적 있는, 하지만 나로서는 들은 적도 없는 지역의 호텔 이름들을 쫓 나열했다. 그가 이상적인 호텔로 고른 것은 현실의 호텔이 아니었다. 그의 이상적인 호텔은 텔레비전이 없고 소음이 없고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층 정원에는 도마뱀불이(도마뱀불이는 행운의 상징이다)가 있어야 하고 3층에는 갈라시아 지방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나는 노터봄이 갈라시아 지방의 바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이상적인 호텔은 실제로 존재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 10으로 검색되는 호텔이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빼고 좋아하는 것을 잔뜩 가져다 붙이는 일종의 상상 속 호텔이었던 셈이다. 나는 ‘이상적인 호텔’이라는 개념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나의 이상적인 호텔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의 이상적인 호텔은 여름밤의 은하수를 볼 수 있을 만큼 주위는 어두워야 하고 창문 밖으로는 고래가 지나가는 것이 보여야 하고 걷다 보면 바다가 나와야 하고 제비(제비는 나의 행운의 상징이다)가 날아야 하고…. 그런데 상상할수록 이상적인 호텔의 세부사항은 끝이 없었다. 나는 눈 내리는 야외 온천에 몸을 담그는 즐거움을 알고 여름에 반딧불이를 따라 걷는 즐거움을 알고,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올리브 숲을 걷는 즐거움을 알고, 겨울 시금치를 먹는 즐거움, 해풍 맞은 굴을 먹는 즐거움, 텃밭에서





갓 숙아낸 상추를 먹는 즐거움,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 던지는 즐거움, 좋은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 기발한 농담을 찾아내고 그것을 듣고 웃을 사람을 떠올리는 즐거움을 안다. 그뿐인가?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깨끗이 샤워하는 즐거움, 손을 맞잡는 즐거움, 인간의 예고가 없는 세계를 보는 즐거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맛보는 즐거움, 이 모든 즐거움을 안다. 결국 이상적인 호텔은 완성되지 못했다.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을 내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거의 무한해 보였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맛보는 즐거움, 이 모든  
즐거움을 안다.**

### **최선을 다할 때 온전한 기쁨을 만나다**

생각할수록 내게 이 호텔은 연장된 정체성의 일부로 보였다. 지구에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는가를 빼고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상적인 호텔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해서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게 되었다.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고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나를 상상해 보게 되었다. 상상뿐일지라도 너무 기뻐다.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더 잘 느끼고,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 안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일 것 같았다. 이렇게 사는 삶이 기쁨이고 의미이고 보람이고 사는 것 같이 사는 기분일 것 같았다. 나는 상상력을 이렇게 정의 내려본다. ‘장차 될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힘’. 그래서 ‘점점 더 기쁨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다.’, ‘기쁨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다.’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한다.

# Intact



#### **글. 정혜운 작가**

마술적 저널리즘을 꿈꾸는 라디오 피디로 현재 CBS 라디오 프로듀서다. 다큐멘터리 ‘자살률의 비밀’로 한국피디대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삶을 바꾸는 책 읽기』, 『인생의 일요일들』, 『뚝박의 좋은 일』, 『아무튼, 메모』 등이 있다.

# 물음표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으로 해독(解讀)하다

## 마술사 최현우

궁금한 것을 궁금한 것으로 남기기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쟁취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멈추지 말고 다가가 보자. 한 발짝 발을 뗄 때 우린 가히 상상도 못 할 결과물을 얻을지도 모른다. 마치 연금술처럼.

### Q. 안녕하세요. 먼저 최현우 님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사가 되고픈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올해로 28년째 무대에서 마술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상상을 많이 한 사람 중 한 명일 거로 생각합니다.

### Q. 경제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경제학과 마술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술사의 길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마술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건 사춘기가 오던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성에게 인기를

얻어보고자 했던 마음으로 가볍게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마술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마술이 주는 놀라운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성한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마술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마술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마술사이신 이흥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마술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과생이 된 건 제가 마술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대학에 다니지 않으면, 마술사란 직업이 무시당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 대학에 입학했었습니다(웃음).



*Choi Hyunwoo*



**내가 원하는 상상력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항상 미스테리한 경험을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의 기적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마술사라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되뇌며, 삶 속에서 항상 마법 같은 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 마술사의 본분이고요. 때문에 마술을 할 때 인간이 원하는 기적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with IBK> 6월호 주제는 ‘상상력’입니다. 마술사에게 상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상상력은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는 24시간 계속 문제점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목욕탕에 들어간 순간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었죠. 내가 원하는 상상력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 독서, 여행, 공연 등을 보면서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상상하다 보면, 정말 마술처럼 답이 나오더라고요.

**Q. 최현우 마술사님은 관객 참여형 마술을 통해 이 상상력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관객 참여형 마술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대예술의 형태는 인터랙티브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많은 팝업스토어가 들어서고, 이머시브 공연이 성공적인 것은 현대대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공연이 1차 소비자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확장되죠. 그래서 공연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형 마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매번 새로운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마술 연구 및 연습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영상과 책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신규 마술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매직 세미나에 참여하여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발견하곤 합니다.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선 약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연 중인 <2024 최현우 Answer>도 3년 전에 기획 때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죠. 이 외에도 멋진 무대, 새로운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내 앞에 관객이 있고, 마술을 본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계속 시뮬레이션하는 연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 마술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술 속 상상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과도한 플랫폼의 발달로 여과 없이 제공되는 정보들로 인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력의 부재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상력의 부재가 단순히 창조력의 범위 안에서만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문제가 생기겠지?”라고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상상이니깐요. 상상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마술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뇌는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을 따지는데, 과정을 지우고 현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Q. 대부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상상을 그치곤 하죠.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책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책은 타인의 인생과 생각을 가장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해본다면 자신이 아는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Q. 상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사회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비판 없이 얻은 지식들은 내일 아침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상상력이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Q. 최현우 마술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세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온라인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과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공연을 통해 신기함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오감으로 즐기길 원한다면 저의 공연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기에 앞으로의 계획, 먼 미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며, 그에 맞는 마술을 선보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최현우 마술사가 <with IBK>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상상력을 키우고, 조금 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마술 공연에 한 번쯤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중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공연엔 <with IBK>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상력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상상을 공유해 보다 더 큰 상상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은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최현우 마술사**

대한민국의 마술사다. 2002년 국제마술협회 경연대회 클로즈업 부문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마술대회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FISM 영국 블랙풀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현재 공연 <2024 최현우 Answer>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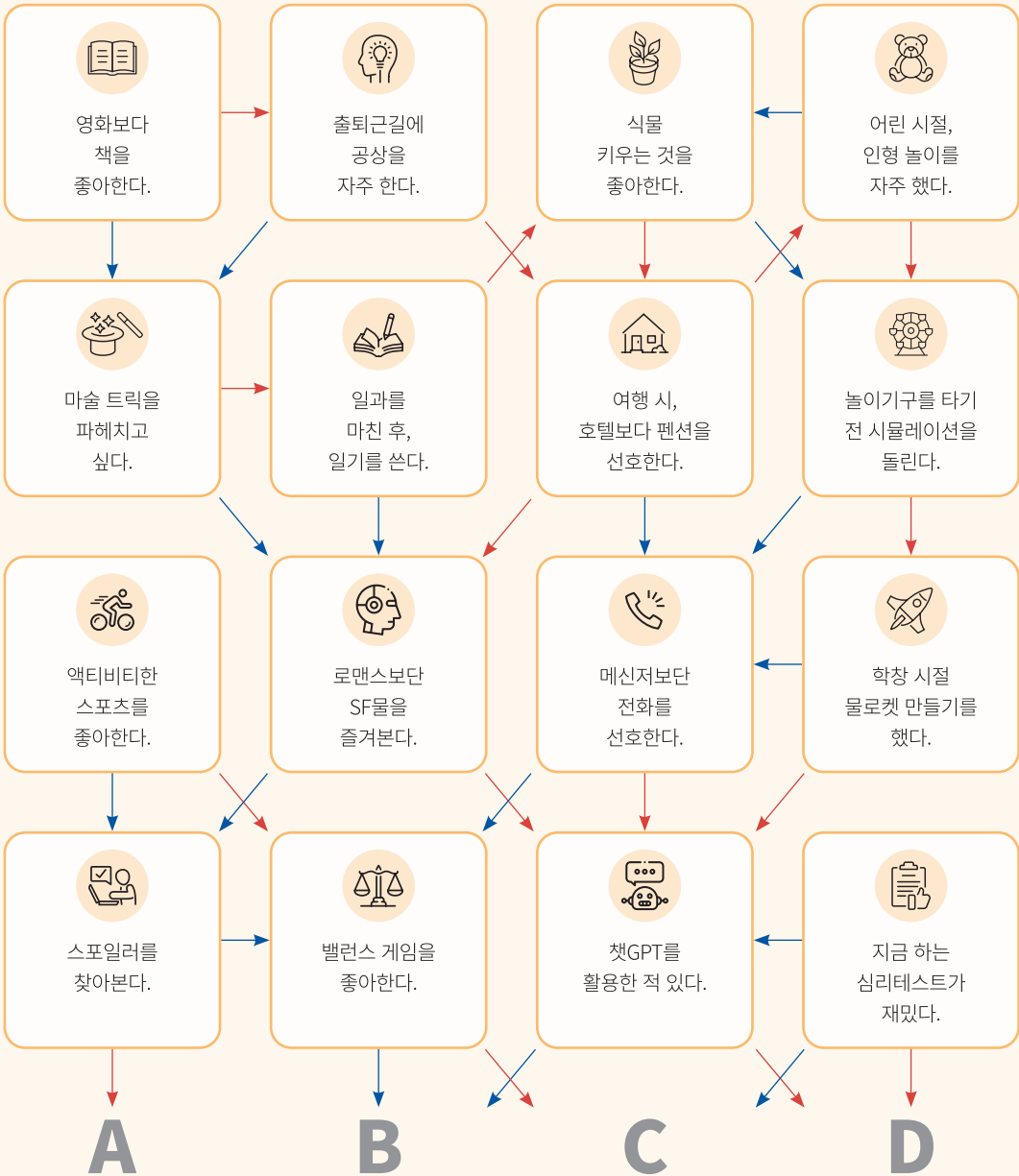




# 번뜩이는 아이디어 나의 상상력 지수는?

START

→ YES → NO





일상을 더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선 비틀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에 상상력을 더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잠재된 나의 상상력 지수가 궁금하다면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 완벽한 현실주의자, 상상력 지수 0

모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현실적인 화법으로 분위기를 살짝 다운시킨 적이 있지 않은가. 이성적인 사고도 분명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에 잠깐의 여유를 주고 싶다면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한 법! 상상력을 키우는 게 어렵다면 영화나 독서를 통해 상상력 훈련을 시도해보자.



#### 공감에서 시작한다, 상상력 지수 50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때 툭툭 튀는 성향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도 무난하게 잘 지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밌는 상상 대신 현실적인 삶을 지향한다. 매일 똑같은 루틴만 반복하고 있어 삶이 지루할 때도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 새로운 것이 좋아! 상상력 지수 80

사소한 이벤트를 좋아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팝업스토어나 트렌드 관련 뉴스레터를 읽는 등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다. 상상력은 물론 실행력까지 뛰어난 당신.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하다 보면 당신의 주변은 상상력 가득한 세상으로 물들 것이다.



#### 호기심이 세상을 지배, 상상력 지수 100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할 정도의 엉뚱함을 지녔다. 안 해본 것이 없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풍부한 감성과 지적 호기심이 충만해 주변에서 아이디어맨으로 불리지만 너무 많이는 아는 것도 가끔 문제가 되는 법. 새로운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잃을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져보자.





내 누군지 아니?

내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그까지 알아야 되니?

⑥ 인천 편\_중화루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급 텐션으로 IBK뜨끼를 뒤집어  
놓고 간 4인방!  
‘트윈룩’까지 맞춰 입고 IBK뜨끼에  
나타난 그들은 서로 ‘네 얼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번 IBK뜨끼는 그들이 보여준  
리액션과 팡팡 터지는 케미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It's Happy Time!*



### 텐!션! 끌어올려~~~!

IBK뜨끼가 인천에 상륙했다! 인천 하면 떠오르는 곳은 많겠지만,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소풍으로 한번은 가봤을 그곳, 인천 차이나타운이 IBK뜨끼가 찾은 여섯 번째 맛집이다. 이를 위해 아침 일찍 인천역에 도착한 강남지역본부 서병석 대리, 수탁사업부 주원진 대리, 인천서구청역지점 모성헌 대리, 화성발안기업성장지점 전정인 대리. 멀리서 움직인 탓에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높은 텐션으로 IBK뜨끼를 맞아준 그들. 촬영 대기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음료수 내기도 하고, 해외에 있어 연락을 못 받은 주원진 대리를 제외하고 남색 카라티로 맞춰 입을 트인록, “치칙! 폭폭!” 하며 기차를 만들어 등장하는 이 철저한 준비성과 하이텐션... 고수의 향기가 느껴졌다.

“저희 4명 모두 2020년에 입행해 대부분의 연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IBK뜨끼가 딱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고민 없이 바로 신청했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니 벌써 재밌습니다!” IBK뜨끼에 신청한 전정인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신청 계기를 말해줬다. 네 사람은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결도 잘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비대면 속에서도 꽃 핀 그들의 우정은 IBK뜨끼에서 빛을 발했다.



## 로얄..유 아니 류..뉴로얄!!

최근 인천으로 발령받은 모성헌 대리가 인천에 놀러 오라고 이야기하던 중에 IBK3기 인천 편에 당첨됐다는 네 사람. IBK3기 인천 편에 운명처럼 나타난 네 사람의 케미와 함께 기대되는 오늘의 맛집은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중화루’다. 1918년부터 시작해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와 우리나라 3대 중국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냄새부터 고소한 삼선짜장과 해물이 잔뜩 들어간 삼선짬뽕, 얇은 튀김과 고기 맛이 일품인 탕수육까지 주문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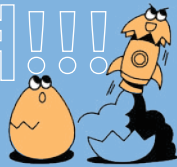
“짜장면을 먹다 보면 느끼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고춧가루를 톡톡 뿌려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조금만 뿌려 먹습니다(웃음).”

“짬뽕 국물을 짜장면 위에 두 손갈 정도 휘리릭 돌려서 먹잖아요? 말해 뭐해! 더 윤기 나고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모성헌 대리와 서병석 대리가 각자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해 주고, 그 옆에서 짬뽕 면치기로 맛있게 먹고 있는 주원진 대리와 전정인 대리. 이들은 이어서 탄산음료, 군만두, 간소새우를 걸고 절대음감 게임에 참여했다. 제시어 ‘칩쌀탕수육’과 ‘단팥맛통짬뽕’을 가볍게 통과하고 ‘로얄뉴로얄’에서 서병석 대리가 힘들어 보였지만 15초를 남기며 무사히 통과해 군만두와 간소새우까지 추가로 주문했다. IBK3기 덕분에 배불리 먹은 날이다!

우린!!  
짬뽕~짜장~  
끌어~올려!!!



**일석삼조의 기회! IBK트끼!**

탕수육 부먹 VS 찹떡 토론, 각 지점 자랑, 요즘 근황과 고민,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IBK인들. 10년 후 “42살 정인아... 건강 챙겨”라며 본인에게 영상 편지를 남긴 전정인 대리 덕분에 이번 IBK트끼는 기대했던 만큼 끝날 때까지 재미를 잃지 않았다.

“IBK트끼 정말 일석삼조 아닙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동료들과 추억도 쌓고! <with IBK> 데뷔까지 할 수 있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그까지 알아야 되니~? MC 손민혁님과 함께 영화 <범죄도시> 패러디하려고 주차장에서 연기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한 추억이네요! 정말 맛있고, 재밌었습니다!”

텐션 높은 참가자들 덕분에 <범죄도시> 패러디까지 진행한 IBK트끼! 주원진 대리의 멋진 사투리와 장첸 뺨치는 연기 덕분에 더욱 퀄리티 높은 IBK트끼 인천편 영상이 만들어졌다. 카메라가 있던 말든 원래 평소 함께 놀던 텐션과 분위기 그대로를 서슴없이 보여준

IBK인들. 날씨는 화창하고~ 배도 부르고~ 함께라서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오늘 하루!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탕수육은  
찌떡이지!!!!

# ‘IBK트끼’에 함께 한 소감 한마디!

## 수탁사업부 주원진 대리

평소 각기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동료 혹은 선후배와 함께 맛집에서 한 끼 촬영하며 좋은 추억 남기는 것도 재밌게 회사 생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 인천서구청역지점 모성현 대리

원진 대리가 연변말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ㅋㅋㅋ 이번 IBK트끼 촬영은 정말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은행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 화성발안기업성장지점 전정인 대리

날씨부터 촬영 분위기, MC 손민혁 님의 진행까지 완벽했던 촬영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기획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 강남지역본부 서병석 대리

영업점, 본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IBK인 여러분! IBK트끼로 주변 동료들과 재미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절! 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 중화루

삼선짜장, 삼선짬뽕, 탕수육, 간소새우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12

032-762-0231

사진 왼쪽부터 주원진, 모성현, 전정인, 서병석 대리

젊은 화산섬의

속살을 만나다

울릉도

鬱陵島





울릉도의 깊은 속살을 만나려면 천편일률적인 패키지여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울릉도에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트레킹 코스가 곳곳에 자리하기 때문. 그중 도동의 수려한 해안길인 행남등대 코스, 관음도와 성인봉은 꼭 걸어보자. 드라이브로 즐겨볼 곳은 울릉도의 해안 절경이 모인 북면 해안이다. 가수 이장희 씨가 꾸민 ‘울릉천국’, 현포전망대, 삼선암 등도 놓치지 말자.



##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길, 행남등대 코스

누구나 예외는 없다. 울릉도에 가려면 먼바다를 건너야 한다. 동해에서 울릉도까지는 161km,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포항에서는 217km 떨어져 있다. 제주도가 완도에서 90km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울릉도가 멀긴 멀다. 게다가 동해 먼바다의 파도는 바람이 좀 세다 싶으면 3~5m에 이른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뜸했기에 울릉도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울릉도를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행남등대 코스는 도동항부터 시작된다. 도동항 여객터미널 뒤편의 큰 다리에 오르면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길은 바다에서 솟은 용암을 파도와 바람이 오랜 세월 다듬어놓은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지고, 그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짙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찰랑거린다. 바다는 섬에서 멀어질수록 검푸른 빛으로 일렁인다.

바닷길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산길이 이어진다. 수풀을 헤치고 솔숲 사이를 걸으니 동화 속에 나올 듯 예쁜 행남등대가 나타난다. 등대 뒤편에는 기막힌 전망대가 숨어 있다. 저동항과 울릉도 북쪽 섬인 죽도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전망대에서 저동까지도 절경이 이어지지만, 강한 파도 때문에 길이 훼손된 경우가 많다. 만약 길이 열렸다면 운이 좋은 거다. 여러 개의 무지개다리를 건너 촛대바위가 반기는 저동항에 닿을 수 있다.

## 푸른 동해가 넘실거리는 관음도와 나리분지

관음도는 울릉도 북동쪽 끝에 있다. 승새(깍새)가 많아 주민들이 깍새섬이라 불렀다. 1960년대 주민 한 가구가 잠시 살다 인적이 끊겼다. 그러다 2012년 울릉군에서 관광을 위해 섬목과 연도교를 놓았다. 관음도를 건너가려면 우선 승강기를 타고 25m쯤 올라야





02

한다. 이어 데크를 따라가면 보행 전용 현수교를 만난다. 현수교에 들어서면 세찬 바람과 함께 압도적 풍경이 몰려온다. 울릉도의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다.

현수교를 건너 울창한 난대림 속의 급경사를 오르면, 비로소 관음도 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제 편안한 오솔길과 데크길이 이어진다. 1km쯤 이어진 탐방로를 따르면 관음도의 청정한 초지가 펼쳐지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본섬·죽도·삼선암 등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관음도를 났으면 나리분지로 이동한다. 단골집인 산마을식당에서 하룻밤을 청했다. 부지깽이, 더덕, 고비 등의 산나물 안주에 씨앗술을 곁들이니 천국이 따로 없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나리분지는 넓고 평온했다. 나리분지의 아침은 강원도 깊은 산골처럼 맑고 선선했다. 성인봉 가는 길은 나리분지 원시림 보호구역을 관통해 나 있는데, ‘나리’란 이름처럼 순하기 그지없다.

01 행남등대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힌다.

02 관음도로 이어진 현수교, 울릉도의 깊고 진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03 선창에서 천부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삼선암



03

천연기념물인 섬백리항 보호구역을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투막집이 나타난다. 미륵산과 송곳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한눈에 봐도 명당이다. 1882년 울릉도 개척 시대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귀틀집 형태인 투막집을 짓고 섬말나리 뿌리로 연명하며 살았다고 한다. ‘나리’라는 이름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신령수에 이르러 물통을 가득 채운다.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물이 좋지만, 특히 나리분지의 물은 최상급이다. 신령수를 지나면 공포의 계단길이 시작된다. 이곳에서 정상 직전까지 끝없이 나무계단이 이어지는데, 중간 지점에 나리분지 전망대가 있다. 드넓은 나리분지 안에 알봉이 봉긋 솟아 있는 모습이 정겹다. 전망대를 지나면 잠시 완만한 능선이 이어지다 성인수에서 다시 계단이 시작된다. 성인수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한바탕 땀을 쏟으면 계단이 끝나면서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10m만 오르면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성인봉 정상이 나타나고 마가목 숲 사이로 조망이 열린다. 나리분지 일대 너머로 푸른 동해가 넘실거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 울릉도 북면의 절경을 찾아서

북면은 드라이브나 버스를 이용해 둘러보는 게 좋다. 북면 땅을 밟기 전 서면 태하리 태하등대 전망대에 둘러보는 게 순서다. 울릉도 절경으로 꼽히는 대풍감에 설치된 전망대다. ‘대풍감(待風坎)’은 바람을 기다린다는 멋진 뜻이다. 옛 돛단배들은 이 근처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태하리에서 대풍감 위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의외로 수월하다. 2008년 개통한 20인승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도 어렵지 않게 이곳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 서면, 북면 해안의 절반가량이 통쾌하게 펼쳐진다.

태하리에서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넘으면 현포리다. 그림 같은 북면 풍경이 펼쳐진 곳에 현포전망대가 딱 놓여 있어 고맙다.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하게 우뚝 솟은 송곳산, 아담한 현포항, 코끼리 모양의 공암이 어우러져 울릉도 최고 비경을 선사한다.

험준한 산허리에 자리한 평리마을에는 울릉도에 정착한 통기타 가수 이장희의 ‘울릉천국’이 있다. 작은



‘대풍감(待風坎)’은 바람을 기다린다는 멋진 뜻이다. 옛 돛단배들은 이 근처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05



06

- 04 태하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풍강
- 05 2013년 석포마을에 개장한 안용복 기념관
- 06 성인봉 정상 전망대에서 본 나리분지가 포근하고 정겹다.

연못과 목을 꺾어야 보이는 송곳산이 어우러진 모습은 가히 천국의 풍경이다. ‘울릉천국’이란 이름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북면의 얼굴마담 격인 삼선암을 거쳐 안용복기념관과 석포전망대를 놓칠 수 없다. 안용복은 조선시대 부산 동래 수군 출신으로 일본 어민이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보고 1693년과 1669년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냈다. 기념관 앞에서는 청명한 날에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기념관 근처의 석포전망대는 일제가 러시아 군함을 관측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한 역사의 현장이다. 전망대에 서면 시야가 넓게 열리면서 송곳산, 공암(코끼리바위) 등 해안 절경이 펼쳐진다.

**Tip 울릉도 가이드**

울릉도의 대표 걷기 명소로 행남등대, 내수전옛길, 관음도, 성인봉을 꼽을 수 있다. 가벼운 산책 코스로 즐기고 싶다면, 행남등대와 관음도 코스를 추천한다. 렌트카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교통**

강릉, 동해(목호) 등에서 울릉도행 여객선이 1일 1~2회 왕복 운항한다. 포항에서 운행하는 울릉크루즈(1533-3370)를 이용하면, 날씨에 따른 결항 걱정 없이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한진렌트카(054-791-5337), 오케이렌트카(054-791-8668) 등을 이용하면 울릉도를 더 편히 여행할 수 있다. 일주버스로는 무릉교통(054-791-7910)을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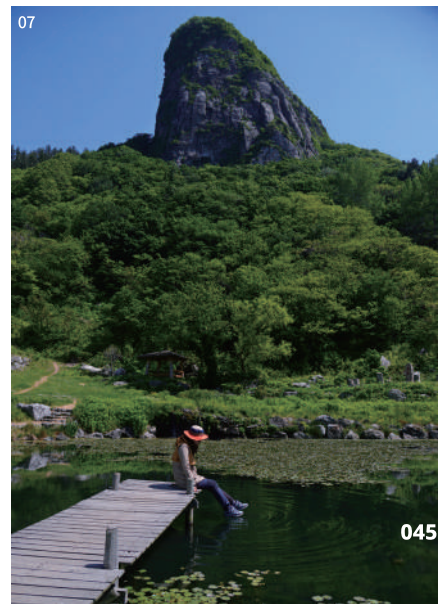
**숙소**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054-791-7788), 추산일가(054-791-7788), 대아 울릉 리조트(054-791-8800) 등이 인기 숙소다.

**맛집**

울릉약소, 홍합밥, 산채비빔밥, 오징어, 호박엿을 ‘울릉오미’로 손꼽는다. 시내 식당에서 대부분 맛볼 수 있다. 성인봉에서 캔 산나물로 정식을 판매하는 나리분지 산마을식당(054-791-6326)이 으뜸이다.

07 가수 이장희 씨가 북면 현포리 평리마을에 조성한 ‘울릉천국’



07

더딘 시간 속,

‘힐링의 땅’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질푸른 바다 대신, 초록의 땅이 발리의 ‘목적’이 됐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유러피안들 사이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사랑받는 섬이다.  
파도, 서핑으로 대변되는 발리 해변의 인기는 내륙 우붓으로 공간이동 중이다.  
요가와 쿠킹 클래스를 즐기고, 논과 숲 사이를 거니는 힐링의 시간이 우붓을 탐스럽게 단장한다.



# Indonesia Ubud



01 '논밭 뷰'가 펼쳐진 뜨가랄랑 마을의 계단식 논

## 예술과 자연, 치유의 공간들

우붓은 예술과 치유의 땅이다. 골목 어느 곳을 배회해도 작은 갤러리, 예술작품과 조우한다. 거리의 익숙한 주인이 된 듯, 아침 시장을 서성이거나, 요가 매트를 맨 채 가벼운 옷차림으로 골목길을 배회해도 좋다. 쿠킹 클래스에 참석하고 레스토랑 텃밭에서 난 채소로 '비건'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뜻깊다. 호수를 마주한 산에 올라 새벽 일출과 마주하는 일, '논밭 뷰'에 취해 나른한 오후를 보내는 일과가 온전히 우붓을 향유하는 방법이다.

요동치는 바다를 벗어나, 예술과 명상을 즐기는 더딘 삶이 우붓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우붓이 인도네시아 예술마을로 정착한 사연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 자바에서 번영하던 힌두 왕국이 발

리로 망명하면서 함께 건너온 예술가들이 우붓에 터를 잡고 발리 전통 회화인 바뚜안, 은세공품 등의 명맥을 이어왔다.

자연과 미술에 취한 이방인들이 찾아들었고, 곳곳에 소규모 갤러리를 세우고 힐링을 공유하며 느린 도시를 함께 일궈냈다. 우붓은 줄리아 로버츠 주연 영화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배경으로 나왔으며, 옛 발리어 '우붓'(Ubad)에는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붓은 왕이 머물던 공간들을 지녔다. '뿌리 사렌 아궁'으로 불리는 왕궁에서 우붓의 마지막 왕이 1900년대 초반까지 살았다.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신과 만나는 띠르따 음블 사원, 왕국의 사원인 크흔 사원에서는 옛 도읍의 온기가 전해진다.



왕궁 건너편은 온갖 기념품이 넘치는 우붓시장이다. 골목, 가게들에서 우붓의 향취는 한결 무르익는다. 중심가인 ‘잘란 하노만’은 예쁜 소품숍들이 즐비하다. 미로 길은 배낭여행자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연결되고, 뛰노는 꼬마들과 자전거 탄 이방인들이 황토빛 골목에서 함께 뒤엉킨다. 유명 관광지인 원송이숲 ‘몽키 프레스트’를 벗어나면 숲속 요가와 ‘비건’ 식사를 즐기는 일과가 꿈처럼 흘러간다.

### 화산과 호수에 기댄 사람

우붓 여행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탐닉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북쪽 외곽 산악지대인 깐따마니는 일출의 산과 호수를 간직한 곳이다. 해발 1,717m의 바뚜르산은 20여 차례 폭발한 활화산이다. 이른 새벽 숲길을 지나 바뚜르 산에 올라 해돋이를 맞는 일출 트레킹은 우붓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산토가 어우러진 깐따마니 일대는 질 좋은 발리 커피를 잉태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02 예술미 넘치는 우붓의 조각상들  
03 바뚜르산과 호수의 아득한 풍경  
04 축제 음식을 나르는 깐따마니의 여인들



깐따마니의 바뚜르 호수는 화산 분화구의 침몰로 형성된 바다 같은 호수다. 언덕에서 산과 호수를 바라보는 아득한 조망은 감동의 일부일 뿐이다. 비좁은 호숫가 길을 따라 마을 깊숙이 내려서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촌부들은 낚시를 하고 아이들은 그 호수에 몸을 던지며, 커다란 사원이 들어서 있고, 골목 사이에서 모락 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우붓 외곽에서 만나는 일상에는 전통의 삶들이 배어 난다. 작은 가게 앞에는 꽃과 음식을 담은 접시인 ‘짜냥사리’가 놓여 있다.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 세 번 제물을 놓고, 꽃잎에 물을 뿌리며 “오늘도 어제 같게만 해달라”고 소박한 염원을 빈다. ‘오달란’ 등 축제 때는 주민들이 전통의상으로 곱게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한다. 과일이며 갖가지 먹을거리를 머리에 이고 발길을 옮기는 아낙네들의 미소가 따사롭다.

정중동의 일과는 우붓에서 드라마틱하게 연결된다. 뜨가랄랑 마을에는 계단식 논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녹색의 논을 바라보며 ‘논밭 뷰’를 즐기는 광경이 이채롭다. 청년들은 아용강의 급류에 몸을 던져 래프팅에 도전하거나 고원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내려서며 여유로운 하이킹을 즐긴다.

### 파도와 서핑, 청년들의 아지트

우붓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발리의 바다다. 닭 모양 형상의 발리에서 발목 아래 부위의 땅에 해변들이 죄다 밀집해 있다.

발랑안, 드림랜드, 임파서블 비치 등은 서핑 포인트다. 서프보드를 모터사이클에 매달고 거리를 질주하는 청년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 길목에서 익숙하다. 빠당빠당비치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등장했으며



06

발랑안, 드림랜드, 임파서블 비치 등은 서핑 포인트다. 서프보드를 모터사이클에 매달고 거리를 질주하는 청년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 길목에서 익숙하다.



아담한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색으로 시선을 끈다. 배낭 여행객과 서퍼들이 몰려드는 쿠타비치 일대는 ‘잘란 르기완’, 뽀뽀스 거리 등으로 알려진 뜨거운 해변이다. 주말이면 체중 속에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서울의 강남 격인 스미낙은 부티크 숍과 클럽, 레스토랑들이 밀집된 ‘발리 쇼핑과 다이닝’의 성지다. 그들만의 삶이 녹아든 해변이 목마르다면 짐바란으로 향한다. 짐바란 일대는 본래 어부들의 삶터였다. 해변 인근에는 끄동안안 어시장과 해산물 레스토랑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식당가를 벗어나 아침 산책에 나서면 짐바란의 아름다운 바다는 찬란하게 옥색 빛을 낸다. 햇살을 머금은 짐바란의 아침 해변은 고깃배가 너울거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아득한 풍경이 담긴다.



**Tip 발리 우붓 가이드**

우붓이 속한 발리 섬은 제주도의 세 배 규모로 이동에 꽤 시간이 소요된다. 도심에서는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여행지 간 이동 때는 뽀라마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발리 차량의 운전석은 오른쪽이며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을 현지에서 빌릴 수 있다.

‘외롱’은 현지인들이 찾는 백반집으로 진열장에 생선튀김, 국, 밥 등을 골라 먹는 빠당 푸드를 맛볼 수 있다. 여기에 발리식 아이스타인 ‘에스떼’ 정도를 곁들이면 좋다. 볶음국수인 미고랭 역시 현지인의 일상식이며 고치인 사태, 구운 통돼지인 바비쿨링 등도 별미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들도 곳곳에 들어서 있다.

숙소는 우붓 도심 골목에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있으며 요가와 스파 프로그램을 갖춘 고급 숙소들이 외곽 숲지대에 위치했다. 최근에는 발리 해변 대신 우붓으로의 허니문 여행도 인기다. 갤러리, 요가 강습장을 둘러보는 별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숙소에서 안내해 준다. 인도네시아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지만 발리 주민들의 종교는 힌두교가 주를 이룬다.

05 여행자와 서퍼들이 몰려드는 발리 쿠타비치

06 고즈넉한 정취의 우붓 2층 카페

07 우붓 골목마다 들어선 아트숍

08 현지인이 즐겨먹는 고치인 ‘사태’



# 금오산 정상에서 낭만을 외치다

‘낭만 6총사’의 금오산 산행기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낭만을 찾는 이들이 있다. 신입 시절 대구 지역에 근무하며 만나 어울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흩어진 지금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과 캠핑을 사랑한다는 이들은 ‘언제 산에 한 번 가자’라는 말만 거듭하다 이번 ‘IBK산’에 참여했다. 금오산에 오르기도 전에 ‘다음은 지리산!’을 외치는 ‘낭만 6총사’와 함께 구미 금오산에 올랐다.



# 金烏山

##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바야흐로 5월 초.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금오산에 6명의 IBK인이 모였다. 오래전부터 ‘산에 한 번 가자’ 이야기해왔던, 세상의 모든 약속과 다짐들처럼 ‘어쩌다 보니’ 등산 한 번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다 발견한 ‘IBK산’ 안내문의 구미 금오산을 보고 곧바로 신청했다고. 몇 해 전 이들이 처음 만난 게 대구였기 때문이다.

모두 대구에서 근무하던 그 시절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 미혼이었는데 이제는 무려 세 명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은 동료의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다. 누군가는 ‘의리’라고 했고, 이들은 ‘낭만’이라고 했다.

“요새 ‘낭만’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캠퍼스에서도 학점이다, 취업이다 해서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좋

아하고 행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그게 낭만이죠.”

오늘 산행을 주도한 안동지점 이준수 과장이 다섯 명의 동료를 둘러보며 말하자 성서공단지점 김형준 과장이 낭만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보탠다.

“낭만을 찾아 산에 왔지만, 산에서는 안전이 우선이죠. 그래야 낭만도 즐기죠. 몸 풀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풀겠습니다. 확실하게 풀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둘~”

맞다. 산에서는 안전해야 즐겁다. 허벅지 근육처럼 많이 쓰는 부위는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부위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한다. 여신심사부 임성원 과장과 안동지점 박지훈 과장, 노동조합 정웅 국장과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김민상 대리도 통글게 모여 몸을 푼다. 이내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마치고 산행을 시작한다. 지도 앞에서 간단하게 산행 코스를 설명하고 5월의 숲으로 들어간다.





02

### 조망의 맛 빼어난 금오산

금오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행 코스는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해운사와 대혜폭포를 거쳐 정상인 현월봉에 오르는 길이다. 편도 기준 4km가 조금 넘는다. 코스는 위험한 구간 없이 평범한데 난이도는 보통 혹은 조금 어려운 편이다. 데크 계단과 돌계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체력에 맞게 휴식을 취하면서 오르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잠깐 걸으니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이다.

“케이블카를 타면 700m 정도 올라갑니다.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는 젊기에 낭만적으로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출발!”

모처럼 등산하자고 시간 맞춰 모였는데 귀한 시간 케이블카에 빼앗길 수 없다는 듯,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케이블카를 지나쳐 등산로로 ‘고고상’.

‘경북 8경’에 꼽히는 금오산의 정상은 높이 976m의 현월봉이다. 금오산 현월봉. ‘금오’는 황금빛 까마귀라는



03

01 헛돌 헛돌, 낭만보다 중요한 준비 운동에 열심인 IBK인들

02 드디어 시작된 금오산 산행!

03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낭만 6총사







**금오산에는 울창한 숲과 우뚝한 기암절벽이 어우러지고 깎아질 것 같은 절벽이 아름다움을 최대치로 보여주는 폭포가 있다.**

- 04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오르는 IBK인들
- 05 해운사 연등을 배경으로 찰칵!
- 06 멋진 대혜폭포 앞에 선 김민상 대리
- 07 잠시 쉬어가는 타임!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휴식



뜻인데, 먼 옛날 신라에 온 승려 아도가 근처를 지나다 해질녘에 까마귀를 보고 지었다고 한다. ‘현월’은 달이 걸려 있다는 뜻인데, 산의 서쪽인 김천 쪽에서 오르면 노을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금오산이 ‘경북 8경’에 꼽히는 이유는 울창한 숲과 우뚝한 기암절벽이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절벽의 아름다움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 폭포다.

해운사에서 30분쯤 걸었을까, 어디선가 시원한 물소리가 들린다. 바로 곁으로 돌돌 흐르는 도랑물이 아니라 망설임도 미련도 없이 장쾌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다. 30m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순식간에 뒷덜미로 흐르는 땀을 식혀주었다. 물론 이어지는 길은 데크계단과 돌계단의 반복이니, 충분히 쉬어 가시길.

‘낭만 6총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다. 말은 “길이 가파르다”,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는 박지훈 과장은 등산과 바이크 마니아고, 정웅 국장과 임성원 과장 또한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디폴트값’으로 설정된 듯했다.

### 지리산을 도모하다

‘낭만 6총사’는 함께 금오산을 오르기 위해 모였다. 예전처럼 모두 대구에서 근무할 때는 모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 경북 안동과 대구 등에 흩어졌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괜히 ‘낭만 6총사’겠는가, 이들은 흔쾌히 득달같이 모였다.

기나긴 돌계단 길을 지나 이제 정상이 저 앞에 보일 듯하다. 이정표에는 ‘성안’으로 표기된다. ‘성’은 금오산성을 가리킨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옛 성터다. 왜구가 침략하면 난리를 피하고자 산 위에 성을 쌓았다. 이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고쳐 쌓기를 거듭해 지금의 산성이 되었다. 그럼 ‘성안’은? ‘성안마을’이란 뜻이다. 금오산성 안에 마을을 이루어 1970년대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08

드디어 도착한 정상, 현월봉. 1,000m가 안 되는 산이라지만 기다란 산맥에 솟아 있어 고갯마루에서 오르는 다른 큰 산들과 달리 금오산은 금오지맥이라는 작은 산줄기에 속해 ‘평지에 우뚝 솟은 산’에 가깝다. 만만찮은 산을 어렵지 않게 오른 낭만의 사내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음 산행을 도모한다.

“산은 지리산 아닌가?”

“그렇지. 산을 사랑한다면 지리산은 한 번 가는 게 예의지.”

“혼자 가라면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멤버로 간다면 어떻게든 갈 겁니다.”

“그게 낭만이죠! 근데 일단 오늘 산행을 마무리해야죠. 여기 보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맞다. 네, 오늘 IBK에서 낭만을 담당하는 ‘낭만 6총사’, 구미 금오산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2024년 시작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장미의 계절도

지났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IBK 구성원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저희 ‘낭만 6총사’가 마음 모아 소원하겠습니다.”

08 정상에 오르면서도 놓칠 수 없는 기념사진

09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약수

10 구미 전경을 내려다 보며 ‘낭만 6총사’ 화이팅!



09



10

금오산은 금오지맥이라는 작은 산줄기에 속해 ‘평지에 우뚝 솟은 산’에 가깝다. 만만찮은 산을 오른 낭만의 사내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음 산행을 도모한다.

### 금오산 INFO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288-2

---

- 입산  
시간
- 상시개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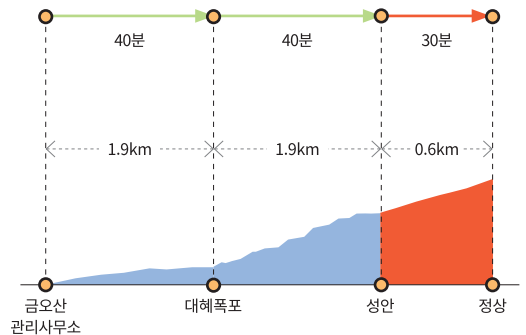
- 코스
- 금오산관리사무소 - 대혜폭포 - 성안 - 정상  
(원점회귀, 약 8.8km)

---

- 문의
- 금오산 관리사무소 054-480-4601

### 등산로 구간별 난이도

■ 어려움 ■ 보통 ■ 쉬움



## 컬러도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 나의 취향 담은 커스텀 운동화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커스텀 문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공방에 모인 네 사람이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커스텀 운동화 만들기에 도전했다.

# Custom





# Sneakers

## 네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다!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퇴근 시간, IT기획부 김준형·김혜연·정택희 대리과 IT금융개발부 박하은 대리가 집 대신 공방을 찾았다. 멋스러운 운동화와 옷, 가방이 가득한 이곳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커스텀 클래스 공방이다. 김준형 대리가 김혜연·박하은 대리, 그리고 정택희 대리와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커스텀 운동화 만들기 클래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박하은 대리가 올 1월 IT금융개발부로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는 IT기획부에서 다 함께 근무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는데, 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갖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 12월에 박하은 대리가 결혼하거든요. 결혼 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모두가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사람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생처음 해보는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운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두근두근한 설렘을 갖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나만의 개성이나 성향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한 시대다. 패션 아이템도 그중 하나. 그래서인지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커스텀 문화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옷, 모자, 신발 등의 패션 아이템은 나만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커스터마이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치마를 착용한 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테이블 위에는 하얀색 천 운동화와 직물용 물감, 아크릴 마카, 다양한 크기의 붓, 물통 등이 준비되었다. 아무런 무늬도, 아무런 색도 없는 운동화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이었다. 네 사람은 “예쁘게, 멋있게, 감각적으로 만들어보자!”라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 다 함께 웃으며, 집중하며 보낸 힐링의 시간

가장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을 칠할지 등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네 사람은 강사와 함께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네 사람은 머릿속으로 구상한 디자인을 운동화에 구현하기 시작했다. 운동화를 바라보는 눈빛과 붓을 든 손길에 진중함이 묻어났다.

제일 빨리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김준형 대리다. 그는 자신이 두른 앞치마에서 힌트를 얻어 두세 가지의 색으로 짧은 선들을 그으며 면을 채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블루 계열의 색들은 시원하고 경쾌했으며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정택희 대리는 운동화 한 짝씩에 각각 레드 컬러와 블루 컬러로 색을 입히기로 했다. 그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먼저 운동화 전체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었다. 그래야 신발에 얼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을 바라보던 세 사람이 어떠한 콘셉트의 디자인인지를 궁금해했다.

“저는 국책은행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랑과 빨강을 각각 한 켤레씩 칠했어요. 제 이름을 영어로 넣어서 디자인을 더 멋스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선배들에게 ‘귀염둥이’로 불리는 정택희 대리의 말에 세 사람이 엄지를 세웠다. 이번에는 스펀지로 도장 찍기를 하듯 열심히 작업 중인 박하은 대리의 작업으로 모두의 눈길이 옮겨졌다.

“요즘 실버 컬러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옅은 그레이 컬러로 도장 찍듯이 어느 정도 면을 채운 후 그 위에 화이트 컬러를 살짝 덧입혀서 반짝이는 느낌이 나도록 하고 있어요. 평소 이렇게 미술 작업을 할 일이 없는데, 어릴 적 생각도 나면서 작업이 재밌고 즐거워요!”

김혜연 대리는 운동화 앞코에 그림을 그리느라 열중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제법 그림을 잘 그렸다는 그는 섬세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왼쪽 운동화에는 결혼 전 분가에서 키우던 강아지 ‘감자’를, 오른쪽 운동화에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는 ‘머랭이’를 그렸다. 김혜연 대리는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면 강아지들과 함께 출근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행복하다”라며 방긋 웃어 보였다.

네 사람 모두 대화를 멈추고 작업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화기에애하던 공방이 조용해지면서 집중의 시간이 이어졌다. 중간중간 드라이기로 물감을 말려주고, 다시 색을 덧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강사가 “작업하는 걸 보니 네 분 모두 감각이 뛰어나다”라며 칭찬했다. 네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 내가 만든 운동화라 정성 듬뿍, 애정 가득

정성이 듬뿍 들어가는 작업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네 사람의 운동화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얗기만 했던 운동화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애쓰고 노력한 두 시간 여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택희 대리는 자신의 영어 이름을 전사지로 뽑아 운동화에 붙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준형 대리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신발을 신어 보면서 가볍게 걸어보았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운동화를 일부러 아스팔트에다 긁어 빈티지 느낌을 주었다. 그는 “멋스러운 디자인의 운동화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새 운동화라서 원하는 느낌이 100%는 아닌데요. 몇 번 신으면 제가 원하는 빈티지 느낌의 운동화가 될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었다. 박하은 대리도 운동화를 착용해 보았다. 그의 운동화는 눈으로 봤을 때보다 착용 후, 더 멋스러웠다. 김혜연 대리는 운동화에 강아지 이름을 쓰는 걸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작업을 마무리한 네 사람은 “내일 신고 갈까?”, “월요일 아침에 다 같이 신고 가는 건 어때?”라며 이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는 “넌 다 성향과 개성이 다른 만큼

운동화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탄생한 것 같다”라며 동시에 웃었다.

각자가 만든 운동화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운동화에 살가운 애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리의 우정, 포에버!”라며 서로를 향한 애정도 표현했다. 박하은 대리가 세 사람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준형·김혜연 대리와는 어느새 5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귀염둥이 정택희 대리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면서 오래도록 우정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박하은 대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머지 세 사람이 “하은아~ 결혼 축하한다!”라며 화답했다. 네 사람이 다시 한번 한바탕 크게 웃었다.

운동화를 상자에 넣어 고이 안고 돌아가는 네 사람의 발걸음이 봄밤의 기운처럼 경쾌했다. 유니크함과 특별함이 가득했던 오늘 이 시간이 네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행복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강사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마음에 쏙 드는 운동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신고 다닐 수 있는 운동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딱 그런 운동화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앞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IT기획부 김준형 대리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강아지를 그렸기 때문에 애정과 정성을 더 쏟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의지가 되는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기획부 김혜연 대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디자인의 운동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슈즈로 딱인 것 같아요.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집중하면서 힐링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IT금융개발부 박하은 대리

입행한 지 3년이 됐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오기 전부터 무척 설렜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동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기쁘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클래스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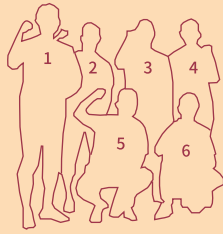


IT기획부 정택희 대리

# 배트에 맞은 야구공처럼 더 높이! 더 멀리!

## 야구동호회 'IBK Win-Wings'

- 1. 방학동지점 강대철 과장
- 2. 학동역지점 박상춘 차장
- 3. 남시화지점 백정현 과장
- 4. 동수원기업금융지점 유문기 과장
- 5. 전략기획부 최성일 과장
- 6. 정계7가지점 김보근 대리



야구공에는 총 108개의 빨간색 솔기가 있다.  
 불교의 108번뇌가 자연스레 떠오르듯, 야구는 하는 사람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미학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는 'IBK Win-Wings'를 만나봤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7. IBK시스템 이한희 팀장
- 8. 개인디지털사업부 김완수 차장
- 9. 금융소비자지원부 김중관 과장
- 10. 남중지역본부 김지완 대리
- 11. IBK시스템 박상진 과장
- 12. 오류동지점 김정연 VM팀장
- 13. 개인디지털사업부 강석진 과장





**Q. 동호회 소개 및 만들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IBK Win-Wings'는 야구를 사랑하는 직원들이 모인 행내 야구동호회입니다. 저희 동호회 명인 Win-Wing은 큰 새를 형상화한 IBK기업은행 CI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현재 회원 50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리그 우승을 한 후, 코로나19로 잠시 활동이 주춤했지만, 최근 신입회원들을 모집하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단야구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동호회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축구, 농구와 다르게 야구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해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팀은 팀 내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구 경력 10년 이상의 회원분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직원분들도 즐겁고 체계적으로 야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구 경기 운영에 도움을 주는 매니저분들도 모집하기 시작했으니 야구에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Q. 직장인이라 평소 연습 및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금융단야구리그 경기가 한 달에 평균 2경기 정도 진행됩니다. 매 경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모여 캐치볼, 타격, 수비 연습을 합니다. 야구의 특성상 넓은 공간에서 연습해야 해 주말에 연습장을 대관해 팀 연습을 하고 있으며, 팀 연습이 힘들 땐 시간이 맞는 회원들끼리 모여 타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Q. 동호회 활동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가장 큰 영향은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공을 던지고, 배트로 때리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또 야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스포츠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항상 본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하다 보면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태도가 반영돼 긍정적인 회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 야구가 혼자서 잘한다고 승리하는 경기가 아니기에 회원들과 더 자주 소통하려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어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Q. 동호회 활동 중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A.** 2019년 금융단야구리그에서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납니다. 정규리그 시합이 끝난 후,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까지 진출했고, 결승전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펼치며 15:14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우승을 이루고 그라운드로 뛰어나갔을 때, 정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땀 흘려 일궈낸 우승이기에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새로운 추억을 덧입힐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되는 금용단야구리그도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할 생각입니다.**

같습니다. 이 기억에 또 새로운 추억을 덧입힐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되는 금용단야구리그도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할 생각입니다.

**Q. 오늘 경기도 우승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초반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야구는 9회말 2아웃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더군요. 중간중간 긴장이 풀려 실점을 당하기도 했지만, 팀원들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통해 경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팀원들과 계속 야구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Q.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오늘처럼 많은 회원이 나와 즐겁게 야구 하길 바랍니다. 물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위해 운동하는 건데 다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호회는 경기를 앞두고 누구보다 스트레칭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치는 사람 없이 더 재미있게 야구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A.** 현재 참여 중인 금융단야구리그 일정에 맞춰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시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경기를 하나하나 이겨나가 최종 결승전 무대에 오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야구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습 공간을 대여해 주말마다 연습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또 ‘Win-Wings’를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매니저분들을 모집해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야구 자체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야구 경기 관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야구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야구가 쉬운 스포츠는 아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즐겁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야구를 좋아하시고 공을 던지실 수 있다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재밌게 야구해요!



# June in History

## 6월에 일어난 이야기



### 06<sub>day</sub>

#### 테트리스 게임 출시

퍼즐 게임의 일종인 테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다. 소련의 프로그래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1985년 제작됐다. 테트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숫자 접두어인 테트라(Tetra)와 파지트노프가 좋아하던 운동 테니스를 합친 말이다. 테트리스는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기와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가동돼 현재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19<sub>day</sub>

#### 최초의 야구 경기 개막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야구는 1846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다. 뉴욕 니커보커스 팀이 1845년에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역사상 공식적인 첫 경기는 이듬해 6월 19일 뉴저지주의 호보컨에서 '뉴욕 나인'이 '니커보커스' 팀을 23 대 1로 이긴 경기다. 한편, 야구는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 이날 프랑스에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북프랑스에서 실시됐다.

#### 이날 쿠웨이트에선?

1961년 70년의 지배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이듬해 아랍연맹과 UN의 인정을 받아 국제법적으로도 독립을 이뤄냈다.



# Big Issue

6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1일 유럽 중앙은행 출범
- 2일 이탈리아 공화국 체제로 변경
- 8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발간
- 9일 제18회 FIFA 독일 월드컵 개막
- 10일 6월 민주항쟁
- 12일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집필 시작
- 14일 경화 고무에 대한 특허 획득
- 20일 빅토리아 여왕 왕위 승계
- 21일 바오로 6세 교황 취임
- 27일 대한민국 첫 지방 선거 실시



## 23<sub>day</sub>

### 남극조약 발효

1959년 12월에 맺어진 남극조약은 1961년 6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1957년과 1958년, ‘국제 지구관측의 해’를 맞아 남극에서 활동 중인 12개 나라를 초청해 조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초대받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연방,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다. 남극조약의 주된 내용은 남극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도 항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이날 캐나다에서는?

1887년 캐나다의 첫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이 개장했다. 이 공원은 앨버타주 켈거리 서쪽에 위치, 수많은 빙하와 빙원을 포함하고 있다

## 30<sub>day</sub>

### 런던 타워 브리지 개통

영국 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스강 위에 도개교와 현수교를 결합한 구조의 다리로 타워 브리지라 불린다. 해당 명칭이 붙은 이유는 런던탑 근처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1886년 착공을 시작해 1894년 완공됐다. 완공된 첫 달, 총 655번이나 다리가 들렸지만, 현재는 1년에 약 500번 정도만 들어 올려진다. 처음에는 수력을 이용해 개폐했으나 오늘날에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

### 이날 미국에선?

1905년 역사상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 당 떨어진다~ 이 느낌 착각일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는 순간 “당 떨어졌다”라고 말한다.  
당이 떨어졌을 때, 달달한 초콜릿을 찾는 우리들.  
과연 초콜릿은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해줄까?



### ☑️ 콩닥콩닥! 설렘이 아닌 저혈당 신호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현기증이 난 적 있다면 음식 섭취량이 적거나, 운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저혈당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저혈당 원인만큼 저혈당 증상도 개인마다 다르다. 전형적인 자율신경성 증상은 손 떨림, 땀 흘림,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공복감, 상복부 불편감 등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당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의학적인 저혈당 상태보다는 공복 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이겨낼 에너지가 부족한 것에 더 가깝다. 하지만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혈당측정기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 ☑️ 저혈당, 적절한 달콤함이 치료약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당뇨 환자 대부분이 식사를 거르거나, 섭취량이 적어 저혈당 증상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인자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이때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당류 15~2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피곤함을 해소하고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빵, 흰쌀밥 등 단순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섭취한 영양소 대부분이 지방으로 축적돼 체지방과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 Tip! 저혈당에서 벗어나는 응급식품

설탕	주스	사탕	요구르트	콜라
				
1숟갈	1/2컵	3알	1병	1/2캔

## 크면 클수록 좋지 아니한가! 거거익선의 시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에 빗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가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



### 빅 사이즈가 끌리는 이유

고물가 시대를 맞아 알뜰 소비 경향이 커지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거거익선(巨巨益善)’이 등장했다. 거거익선은 다다익선에서 파생된 단어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세히 말해 대용량 식음료 제품 또는 대형 가전을 구매해 가성비와 가용비를 동시에 챙기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거거익선은 음식과 가전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해당하는 말이나, 빅 사이즈 음식만큼은 단순 소비 행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Z세대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미에 초점을 둔 빅 사이즈 제품들은 SNS와 숏폼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대란을 일으켰고, 일종의 ‘챌린지 문화’까지 만들어냈다.**

점보 사이즈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량이 많은 ‘스테디셀러’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충성도가 입증된 제품들이다. 기존 제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익숙한 새로움’이라는 공식이 통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큰 사이즈의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닌 만큼 업계에서도 소비자 니즈를 공략하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내놓는 중이다.

한편, 거거익선은 늘어나는 1, 2인 가구나 소식자를 겨냥한 소용량 트렌드와 대조적인 행보다. 하지만 기존 상품 대비 실속 있는 제품을 찾는 수요가 꾸준하고, 색다른 경험까지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거거익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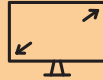
©BGF리테일



클수록 맛있고  
배부른 밥!

최근 런치플레이션으로 한 끼 해결을 위해 ‘빅(Big)’, ‘더블(Double)’, ‘롱(Long)’ 등의 이름을 달고 용량을 늘린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U가 출시한 초대형 사이즈의 삼각김밥 ‘슈퍼 라지킹 삼각김밥’은 출시 하루 만에 5,000여 개가 판매됐으며, 3일 차에 누적 2만 개가 팔리며 초기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 편의점 업체가 분석한 2022년 상반기 삼각김밥 및 김밥 판매 데이터를 보면 ‘더빅/더블삼각김밥’, ‘대용량 김밥’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삼각김밥/김밥 증가율인 33%와 비교해 38%p 높은 수치다.

GS25는 큰 사이즈의 용기 면을 연이어 선보이며 거거익선 트렌드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작은 2022년 5월 출시된 점보도시락면이다. 점보도시락면은 일반 용기 면 대비 8배 이상 규모의 초대형 제품으로, 기존 팔도 도시락(86g)의 8.5배 용량이다. 당초 5만 개 한정 정도로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출시 사흘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품절 사태가 지속되자 중고마켓에서는 정가(8,500원) 2배 수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hy와 GS25가 손잡고 출시한 야쿠르트 그랜드는 1971년 출시된 기존 야쿠르트를 4배 용량(280ml)으로 키운 것으로, 출시 후 하루 6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 빅가전이 주는 빅웃음과 빅편의

가전 시장에 대형화 바람이 거세다.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TV는 65인치 이상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영상, 스포츠, 게임, 헬스 등 집에서 TV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몰입감과 시청 경험을 좌우하는 초대형 TV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2020년 4월 65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또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집콕 문화와 영화를 볼 때도 아이맥스(IMAX) 영화 등 프리미엄 콘텐츠 시청 경험이 익숙한 3040 젊은 세대, 무인 시스템으로 바뀐 영화관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65인치 이상 대형 TV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TV뿐만 아니라 세탁기와 건조기도 대형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24kg 용량의 세탁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24kg은 가정용 기준 국내 최대 용량이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양 또는 부피가 큰 빨랫감을 한 번에 세탁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용량 제품 또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레인지도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다. 가정 간편식과 편의점 도시락을 집에서 데워 먹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전자레인지 크기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 고객가치 창출 ————— IBK중국유한공사



# IBK 중국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다. IBK중국유한공사는 15년 동안 ‘고객가치’를 중시하며 달려오고 있다. 그 결과, 고객 만족과 함께 IBK중국유한공사의 미래도 탄탄해지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유한공사

## 국외 점포의 만형으로 불린다

IBK중국유한공사는 2009년 6월 설립된 IBK 첫 국외 법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 총 16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으며, 총 5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본국 직원은 45명이다.

IBK중국유한공사의 본점은 중국 텐진시에 소재하고 있다. 텐진시는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과 함께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내 손꼽히는 물류 운송의 허브다. 이곳에는 국내 굴직한 대기업인 삼성과 LG, 포스코 등 1, 2차 협력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다. IBK중국유한공사는 2010년 초반까지 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현지 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한중 기술력 격차 축소 등의 요인과 더불어 2017년 사드 사태가 발생하

면서 국내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에 IBK중국유한공사는 영업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 그 결과, 올해 3월 말 현지 기업 대출자산 비중을 약 67%까지 끌어올리는 등 영업의 핵심축을 현지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비대면 상품을 통해 리테일 고객 공략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맞춤형 여신 상품을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IBK중국유한공사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이익 성장을 가속화 해 IBK ‘국외 점포의 만형’으로 글로벌 사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 경영전략본부



# Global Business



IBK중국유한공사는 현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이익 성장을 가속화 해 IBK '국외 점포의 만형'으로 글로벌 사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 영업마케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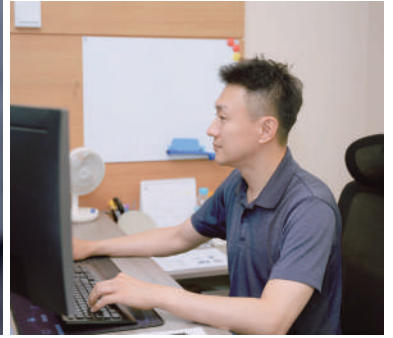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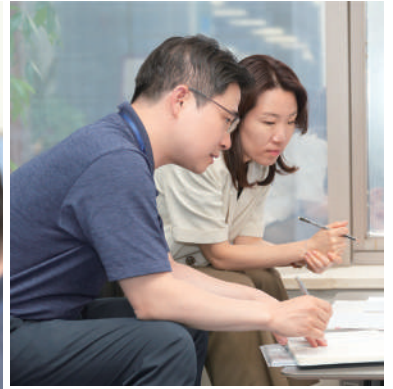
### 중국 내 한국계 은행 중 실적 1위 기록

중국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경기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의해 현지에서의 경영 환경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IBK중국유한공사는 건전성 관리 및 성장 유망한 현지 기업 마케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법인설립 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2억 위안(원화 기준 381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실적 1위이자 IBK 12개 자회사 중 실적 2위의 기록으로, 대내외적으로 IBK중국유한공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초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이는 중국의 대형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쌓았다는 점과 타 한국계 은행이 AA+로 IBK

중국유한공사보다 한 단계 낮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과 비교해 현지 고객 신규유치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IBK중국유한공사는 앞으로도 중국 내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기업 대출상품 등을 출시해 영업망의 한계를 극복해 현지 중기금융의 영토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 *No. 1 in Performance*

여신운영본부



## 일류기업 도약을 위한 현지화 추진

IBK중국유한공사는 올해 초, ‘챌린저뱅크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현지영업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발표했다. IBK중국유한공사가 지향하는 미래상인 ‘챌린저뱅크’는 중기금융에 특화하며, 디지털 기반 효율적 영업 프로세스가 구축된 작지만 강한 전문은행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를 시험하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고객 맞춤형 상품, 고객밀착형 영업 관리, 고객 최우선 CS 등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현지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의 발달된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 테크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플랫폼 금융으로 리테일 고객 공략도 본격화해 고객 기반, 자산 포트폴리오, 이익 다각화 등 모든 부문에서 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15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IBK중국유한공사는 향후에도 중기금융 특화 국책은행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현지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일류 은행으로 계속해서 도약할 계획이다.

## 디지털본부

# Challenger Bank





**IBK중국유한공사는 올해 초,  
‘챌린저뱅크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 Mini Interview



**IBK중국유한공사**

**김원섭** 법인장

기업은행(중국)  
유한공사 법인장



### ● ●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금융업은 ‘신뢰’를 근본으로 이뤄집니다. 이 ‘신뢰’의 기반을 두텁게 만드는 것은 ‘고객가치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IBK중국유한공사 임직원들에게 혁신적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기준부터 내부 통제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의 기본까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고객가치 창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IBK중국유한공사

중국 현지의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K중국유한공사는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중국 내 대형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속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IBK중국유한공사의 앞모습을 응원해주세요.

# 15년 후 IBK중국유한공사는

□□□□□ 은행으로

발전합니다!

IBK  
중국유한공사

혁신  
아이콘



김원섭 법인장

경영전략  
본부

성공  
롤 모델



전재형 부법인장



박윤상 팀장



한태수 차장



이만희 차장



강소정 과장



류지광 刘继光



김화 金华



류성남 刘盛楠



오정량 吴政亮



채녕 蔡宁



최근춘 崔今春



진선 秦頔



김계향 金桂香



두선림 杜春婷



류림령 刘婷婷



리광이 李广艺



윤란 尹兰



장여우호 张友浩



조광두 焦光斗



황은옥 黄文玉



고현지 高天琪



동페이 董菲



리소 李潇



장루 张璐



장효단 张晓丹



정난난 景楠楠



피멍디 皮梦迪



호지혜 郝智慧



관웨이 贯玥



김명일 金永日



리사자 李思佳



리젠 李倩



신메이홍 慎美红



이송림 李松林



장선 张逊





장신신 张欣鑫



장칭칭 张菁菁



안영란 安英兰



왕리나 王丽娜



총링페이 宗凌非



피커런 皮可人



호위원 郝育文



김훈철 부법인장



서동규 팀장



권준범 차장



박춘봉 朴春峰



귀양 桂昶



류정 刘菁



쉐페이 薛菲



왕쉬 王旭



웨샤오디 韦晓荻



전련리 全莲丽



김현주 金铉宙



송효교 宋晓娇



스원민 史源泉



왕정정 王正正



주천루이 周晨蕊



정춘휘 静春晖



최경철 崔景哲



안병립 부법인장



신민수 팀장



김은경 팀장



다یره 팀장



김해연 金海燕



류연링 刘彦伶



류후이 刘慧



리페이 李菲



마즈웨이 马紫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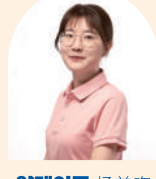
모나 毛娜



안란 安然



안화 安花



양메이즈 杨美姿



오상민 吴祥敏



왕리홍 王丽红



왕월 王月



**왕준** 王俊



**위홍연** 宇红娟



**이영전** 李瓊芊



**장첸난** 张倩楠



**전완린** 陈琬琳



**최내성** 崔乃升



**류지팅** 刘志婷



**신광휘** 申光辉



**오준설** 吴俊雪



**팡지초오** 庞继超



**김소홍** 金素红



**다오영** 刁莹



**류평평** 柳鹏鹏



**손위호** 孙昱昊



**세원완** 薛源



**장연** 张妍



**장왜** 张悦



**주쉬안다** 朱宣达



**첸징징** 陈晶晶



**동수** 佟枢



디지털  
본부  
디지털  
전문



**송재경** 宋在景



**장윤규** 庭章



**고지남** 차장



**원영귀** 元永贵



**런위** 任宇



**류페이** 刘飞



**손메이위** 孙美钰



**양총준** 杨丛健



**웨이나** 魏娜



**정연** 郑妍



**주모연** 朱墨妍



**첸나** 陈娜



**귀문** 郭雯



**귀위항** 郭宇航



**귀지안송** 郭剑雄



**권현항** 权莲香



**동이사오** 董峰晓



**리광림** 李光林



**박효린** 朴晓琳



**엄봉호** 严峰虎



**장지양** 张强



**조인문** 赵熠文



**주신근** 朱鑫根



**천치오** 陈超



**권산** 郭杉



**권지홍** 郭继红



**루명요** 卢梦瑶



**루천** 卢琛



**류해양** 刘海洋



**리밍양** 李明阳



**리정위안** 李静媛



**상관쉬민** 上官旭敏



**스웨이밍** 史雪铭



**왕페이** 杨佩



**왕버** 王博



**왕소명** 王晓萌



**위신위** 于新宇



**이다** 李达



**장루이** 张蕊



**장치치** 张琪琪



**추영신** 邱永新



**푸텐텐** 符甜甜



**후자리** 胡加利



**나건욱** 림장



**김춘** 金春



**스소메이** 史晓梅



**싱안치** 邢安琪



**조호철** 曹浩哲



**훤아오** 霍耀



**왕연화** 王艳华



**류팡위** 刘芳宇



**리에** 李焯



**사오쉐웨이** 邵学伟



**왕관난** 王冠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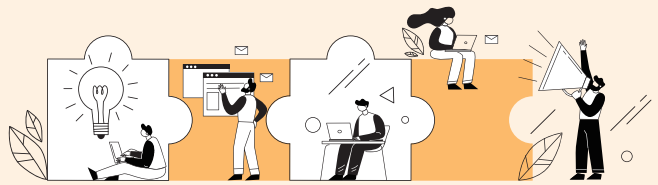
**장은** 张云



**주은희** 朱银姬



**탕다오** 汤韬



# 좌절과 포기가 없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삼이씨앤지 정효선 회장  
천안지점 거래 기업



투수블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가가 있다. 바로 (주)삼이씨앤지의 정효선 회장이다. ‘정효선 회장’ 하면 ‘보도블록계의 큰손’, ‘투수블록 신화를 쓴 인물’, ‘맨손으로 자수성가해 꿈을 이룬 CEO’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성공 신화를 이루기까지 숱한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효선 회장은 좌절과 포기 대신 도전과 극복의 자세로 무장하고 역경을 헤쳐냈다.







**투수블록계의  
신화를 창조하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지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서 도시 침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투수블록’이 주목받고 있다. 투수블록은 말 그대로 물을 투과시키는 특수한 보도 및 차도 블록으로, 배수로로 가는 빗물의 양을 줄여 저지대 침수에 걸리는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1996년 설립된 (주)삼이씨엔지는 투수블록, 잔디블록, 콘크리트 경계석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건설자재 제조 기업으로, 정효선 회장은 투수블록계의 신화를 창조해 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설립 초창기에는 투수블록이 아니라 벽돌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사 얘기를 하려면 남편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웃음). 저와 남편은 한 콘크리트 기업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성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어려웠던 시대라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둘 다 서른두 살이었는데, 그래서 사명을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삼이씨엔지로 지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투수블록 전문 제조기업으로 성장한 계기는 정효선 회장이 마흔 살에 만학도의 길을 선택해

주경야독하면서다. 정효선 회장은 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고, 이후 대학원에서 건축 환경을 전공하면서 투수블록 제품 관련 논문을 썼다. 제품은 남편인 유병용 대표가 개발해 특허를 냈다.

“우리나라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사용한 전면 포장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몰려 물이 역류해 도로가 잠기는 일이 빈번하죠. 이를 도심형 홍수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투수 콘크리트의 대체품인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록은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주)삼이씨엔지는 KS, ISO 9001, 친환경 인증, 특허 등 다수의 인증을 받았으며, 투수 지속성 기술 인증 ‘TR(Technology Reliability) 마크’를 최초 획득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내추럴 파이프 스톤’의 경우 천연 돌을 직접 표면에 표출한 친환경 블록으로 자연 그대로의 색을 연출하여 미관이 뛰어나고 기존 투수블록에 비해 강도가 높고 동결융해에 강하며 열섬 방지 효과와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블록이다.



정효선 회장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에는 개그맨이 꿈이었을 정도로 남을 웃기는 능력이 뛰어났다. 타고난 유머 감각에서 발산되는 유쾌함과 시원시원한 성격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다. 그리고 밝고 쾌활한 성격 이면에는 벽돌 한 장을 팔기 위해 갖난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영업 전선에 뛰어 들었던 엄청난 열정과 끈기가 숨어 있다.

“2000년부터 6년 동안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에 터를 잡고 공장을 설립했는데 벽돌에서 보도블록으로 종목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프던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늦둥이 아들을 출산하면서 삶의 희망을 다시 얻었고, 무조건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제품이 우수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제가 열심히 뛰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효선 회장과 유병용 대표는 각자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맡기로 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유병용 대표는 제품개발자로 공장장 역할을, 정효선 회장은 영업을 맡아



### (주)삼이씨앤지의 특징점

#### Step. 1

##### 탁월한 기술력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높은 재구매율과 입소문이 증명한 투수블록의 1인자

#### Step. 2

##### 멈추지 않는 연구개발

산학연 연계 R&D,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로 다양한 제품 연구개발

#### Step. 3

#####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업력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  
진심을 담은 감동을 전하는 힘

현장을 다녔다. 영업은 정효선 회장의 성향이나 성격과 아주 잘 맞았다. 회사가 성장한 지금까지도 영업은 여전히 정효선 회장이 맡고 있다. 정효선 회장은 ‘영업이 희열’이라고 말한다.

“땅을 파는 곳이라면 무조건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영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에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열 군데를 가면 여덟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을 때 그 희열이란 말로 형용하기 힘들습니다. 저는 영업을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진심을 전해 사람에게 감동을 선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효선 회장에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다. 정효선 회장은 세종시에 본사 사옥을 준공하고, 지난 3월 16일 준공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물을 사이로(silo) 모양으로 올리면서 100억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저를 뺀 모든 사람이 건물은 네모나게 지어야 한다고 했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상생을 꿈꾸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현재 정효선 회장은 아들인 유재균 대표에게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유재균 대표가 이끌어가는 (주)삼일리드텍과 세종공장은 정효선 회장이 유재균 대표와 힘을 합쳐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남편 유병용 대표는 광주공장에서 제품 연구개발에 매진 중이다.

“사업을 하다 보니 5년에 한 번씩 변화해야 하는 계기가 찾아오더군요. 그때마다 변화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간 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파도를 넘지 못하면 결코 바다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저는 1996년, 2000년, 2004년 주기로 파도가 쳤는데, 그때마다 과감하게 뛰어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업은 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한다면 성장과 발전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정효선 회장은 언젠간 은퇴하고 나면 강연을 다니면서 사는 게 꿈이다. 투수블록으로 사업을 성공케도에 올려놓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어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경험에서 깨달은 노하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사업을 잘 영위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임할 것이며, 그동안 받은 마음을 지역사회와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나눠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성실함, 책임감, 긍정적인 자세, 유머 감각 등의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효선 회장은 (주)삼이씨앤지를 성장과 발전이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속 기업,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정효선 회장이 꿈꾸는 희망찬 내일이다.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준  
가족 같은 IBK기업은행  
언제나 고맙고 든든합니다!**



**Q.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서로 상생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기여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제 회사가 지속 가능 기업, 사회적 기업, 계속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제가 마음먹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로는 자선사업에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삼이씨앤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갚는 마음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블록 1억 원 상당을 보령시, 공주시, 세종시에 기증하기도 했고, 홀몸 어르신들이 사시는 시골 마당에 보도블록을 깔아드리기도 했는데요. 장학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A. 공주공장에서 7년 정도 사업을 이어 나가면서 공주공장만으로는 주문 물량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업을 뛰다 보니 확실한 감이 오더군요. 그래서 공주공장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대출받기 위해 거래하던 몇 군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이 커서 거절 의사를 보이더군요. 그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은행이 바로 IBK기업은행입니다.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를 믿고 도움을 준 IBK기업은행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덕분에 공주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IBK기업은행은 ‘든든한 동반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주)삼이씨앤지 정효선 회장

**IBK기업은행의 가족 같은 (주)삼이씨앤지  
앞으로도 성장과 발전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Q. 천안지점을 소개해주세요.**

A. 천안지점은 IBK기업은행이 창립하면서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점입니다.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와 업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이나 업무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동료를 서로 배려하고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원활한 업무 구조에 있습니다. 천안지점은 반도체 기업과 구도심의 자영업자 고객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천안지점의 또 다른 특이점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을 위한 숙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고 심사센터도 함께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Q. (주)삼이씨앤지의 비전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A. (주)삼이씨앤지는 창립 이후 회사의 외형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정효선 회장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IBK기업은행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삼이씨앤지의 투수블록은 ‘명품블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서는 차별화돼 있고,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3공장 준공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이씨앤지의 전망과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삼이씨앤지와 IBK기업은행의 멋진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



천안지점 김기호 지점장

ifam&

# 50년 바이브 모래내 블루스

# 우리는 지금

## 모래내 블루스로 힐링 중!

(주)에스엠코프 김승민 대표  
마포지점 고객



유아 전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주)에스엠코프 사옥 안에는 기타와 드럼, 베이스 등 여느 밴드 합주실 못지않은 공간이 있다. 바로 김승민 대표의 힐링 공간이자 약 50년 가까이 된 찐친들과 음악으로 하나 되는 곳이다.





### 음악과 함께 한 50년 지기 찌친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주)에스엠코프는 ifarm(아이팜)과 Takemehome(텍미홈) 브랜드를 런칭하며 유아용품과 애견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0년 창립 아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아용품 개발에 힘쓴 아이팜은 국내 최초로 베이비룸 개념을 도입하며, 국내 베이비룸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또 텍미홈 펫 브랜드를 통해 새롭게 뜨고 있는 애견용품 시장에도 미리 진출해 국내외로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주)에스엠코프에 사옥에는 유아용품과 애견용품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무대가 눈에 돋보인다. 드럼과 기타, 베이스, 여러 개의 스피커와 앰프까지 밴드 합주실을 연상케 한다. 실제 밴드 합주실로 쓰이고 있는 이 공간은 (주)에스엠코프 김승민 대표의 취미 그 이상의 활동을 하는 곳이다. 바

로 ‘모래내 블루스’만의 공간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약 50년이 넘었네요. 같이 동업하고 있는 강석봉 대표를 포함해서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3명의 친구들까지 총 5명이 모여 함께 밴드를 결성했어요. 매주 이곳에 모여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이름은 모래내 블루스인데요(웃음). 옛날에 우리 동네를 모래내라고 불렀는데 5명 모두 그 동네에서 함께 살고 지낸 터라 이름을 모래내 블루스라고 정했어요. 기타 2명, 베이스 1명, 드럼 1명, 보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던 5명의 소년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회사 대표가 되고,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된 지금까지도 음악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고 있었다.

## 건강한 ‘몰입’을 선물한 음악, 밴드

약 2년 전, 어릴 때부터 쪽 해오던 음악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밴드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김승민 대표. 음악을 좋아하는 찐친들을 영입해 모래내 블루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결성된 밴드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에스엠코프 사옥 안 합주실에 모여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있다. 연주회나 공연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김승민 대표는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진실한 마음을 말해주었다.

“아직 공연을 해본 적은 없고요. 기회가 되면 공연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물론 지인들을 초대해서 공연하고,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여주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진 않아요. 보여주려고 하면 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음악을 하고 밴드를 하는 목적은 잘하든 못하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것에 있거든요. 은퇴하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는데 밴드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사실 운동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시며

놀 수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매력은 음악인 것 같아요. 술에 몰입하면 몸이 상하잖아요. 운동도 우리 나이에 몰입하면 몸 상할 수 있거든요(웃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음악에 몰입하는 게 저에게 가장 잘 맞고 건강하고 재밌습니다.”



사실 직장인 밴드를 1년 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상으로 바쁘기도 하고 서로의 음악 취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찐친들이라고 해서 모두 음악적 취향이 같은 건 아니었다. 밴드명에 블루스가 들어가는 만큼 김승민 대표는 ‘Eric Clapton(에릭 크립톤)’, ‘John Mayer(존 메이어)’ 아티스트와 같은 흑인 소울이 가득한 블루스 장르의 취향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뽕짝(?)을 좋아하기도 한다고. 이런 음악적 취향과 다양한 이유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미운 정 고운 정 가득한 찐친이기에 절대 해체할 수 없다는 모래내 블루스. 실제로 합주를 보여주는 순간에도 “튜닝 좀 잘 맞춰라”, “박자가 그제 뭐니”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 뒤로 보컬과 기타, 드럼과 베이스가 하나가 되어 합을 맞추는 프로급 실력을 보여주며 모래내 블루스만의 매력을 뽐내주었다.



음악을 하고 밴드를 하는  
목적은 잘하든 못하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것에 있어요.



모래내 블루스  
유튜브 바로가기





### 모래내 블루스는 '사랑'입니다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기타 학원이 없었기에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지만 수준 높은 기타 실력을 갖춘 김승민 대표. 함께 기타를 치고 있는 강석봉 대표의 말에 의하면 라이브 카페에 가서 김 대표가 기타를 치면 그곳에서 기타 치는 분들이 다 기타를 놓고 김 대표의 연주를 감상할 정도라고 한다. 부끄러운지 그냥 음악과 기타에 애정이 깊은 아마추어일 뿐이라며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김승민 대표. 김승민 대표에게 음악 그리고 모래내 블루스는 어떤 존재일까.

“단순 취미라고 하기엔 음악과 밴드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고요. 저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음악과 밴드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면 밴드만 할 생각이거든요(웃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연주하며 평생 음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래내 블루스의 계획을 묻자 꾸준히 즐기면

서 음악을 할 것이라는 김승민 대표 말에 덧붙여 산과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멋있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관객 삼아 음악 연주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 생각만 해도 낭만적인 친구들의 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리더 김 대표는 10년 안에 고려해 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찌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승민 대표에게 음악은 삶의 일부, '사랑'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회사 직원들이 대표님은 기타 치러 회사 오는 것 같다며 장난 섞인 말을 할 정도로 기타에 진심이었고, 기타를 잡는 순간에는 회사의 대표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인터뷰를 마치고 블루스 장르의 전설적인 곡 B.B.King의 <The Thrill Is Gone>을 들려준 모래내 블루스. 소울 충만한 라이브 실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아 전문 브랜드 대표의 반전미와 찌친 바이브가 돋보이는 모래내 블루스의 활발한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 IBK창공 기업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에임스

eMTC 기반 BMS를 통해 에너지와 데이터를 융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mskorea.kr](http://aimskorea.kr)



AI 공간 관리 솔루션



유니유니

프라이버시 걱정 없는 공간관리 AI 솔루션, 싸비 (Savy)를 시작으로 프라이버시 테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iuni-ai.com](http://uniuni-ai.com)



CONNECTION  
ANALYSIS  
DATA  
SEARCHING  
VERIFICATION  
CODING  
S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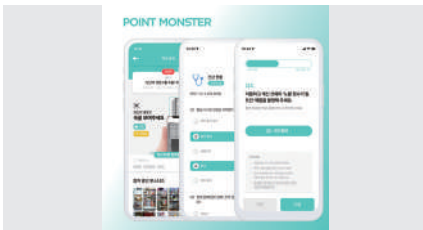
IBK항공  
**부산**

소비자 데이터 중심의 AI



데이타몬드

생산형 AI(sLLM) 기반의 비금융 소비자 데이터 자동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datamond.ai

IBK항공  
**대전**

폐기물 차량 운송 및  
경로 최적화 솔루션



브이유에스

폐기물 차량 경로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운영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기업이다.



 withVUS.ai



##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친환경



에임스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플랫폼 서비스기업이다. 에임스가 운영하는 ‘나누’는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플랫폼으로, 전기이륜차 이용자는 ‘나누’ 앱을 통해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을 찾고, 사용한 배터리를 반납하고,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 후, 이동하는 모든 작업을 10~20초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 나누 배터리 공유 플랫폼은 BaaS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로 작동된다. 현재 나누는 배민커넥트 라이더의 선택을 받은 배터리 서비스로 국내 배달 환경에 최적화된 배터리 렌탈 BaaS 서비스로 손꼽히고 있다. 나누의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 후 배터리 자원의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의 전초가 되어 친환경 모빌리티의 교체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 모든 공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AI 솔루션



유니유니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AI 솔루션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한다. 이에 화장실, 병실 등 프라이버시 문제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 안전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avvy(쌔비) AI를 개발했다. savvy AI는 비식별 데이터 기반 행동감지 AIoT 시스템을 통해 공간의 이상 및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화장실용 쌔비의 경우 이상행동(범죄, 낙상 등) 감지 즉시 안심 관리자, 경찰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 98%에 가까운 정확성으로 전처리 및 모델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 및 행동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유니유니는 현재 국내 공공기관 및 B2B 납품을 통한 신뢰도 확보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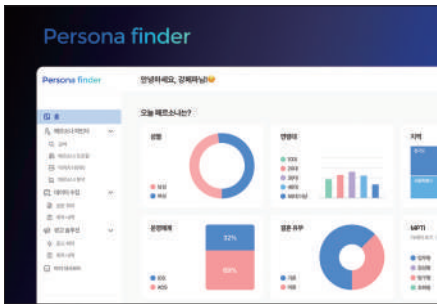




## AI 기반 고객 페르소나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몬드는 국내 최초로 제로-파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으로, Zero-Party Data 수집, 전처리, 분석, 보안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메타 페르소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메타 페르소나 프레임워크는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고객을 단·중·장기적 관점으로 분류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데이터몬드는 페르소나 파인더를 통한 B2B 소비자 데이터 매출 증대 및 제로파티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매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며, 페르소나 파인더 고도화, 포인트몬스터 글로벌 버전을 출시해 판로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폐기물 수집 차량의 업무효율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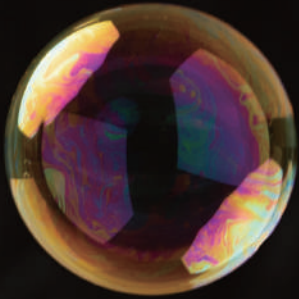
브이유에스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셔틀, 물류 이동패턴 분석 및 최적화 설계를 위한 MRI와 운영솔루션 ‘Moving’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경로 및 배차 최적화 및 업무효율화 솔루션 ‘mango’를 개발했다.** 이동 패턴과 차량 정보, 폐기물 배출처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며, 수집 운반 라우팅 최적화, 경유 합적 배차 최적화를 추구한다. 또 미 거래 배출처 관리 및 최적 거점과 처리장을 추천하고 거래명세서 및 청구서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높인다. 브이유에스는 향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집 운반업 영역까지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브이유에스는 IBK창공 참여 이후 Pre-A라운드 투자 유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 팔 주사와 엉덩이 주사, 왜 맞는 부위가 다를까?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는 주사를 맞는다.  
주사실에 들어가 소매를 걷는데  
이건 팔 주사가 아니란다.  
팔과 엉덩이 주사, 대체 무엇이 다를까?



##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팔 주사

주사는 환자의 몸 상태나 약 처방에 따라 놓는 부위와 방법이 달라진다. 주사를 맞는 부위는 크게 피부와 근육, 혈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주사 요법도 피내주사, 피하주사, 정맥주사, 근육주사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손등이나 팔목, 팔꿈치 안쪽 핏줄 등 수액을 맞거나 수혈 시 맞는 주사가 정맥주사다. 정맥주사는 약물이 1~2분 내 심장을 거쳐 신체 내 필요한 조직에 도달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흡수가 빠르기에 약이 몸에 맞지 않거나 너무 강한 성분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다음 동맥주사는 동맥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악성종양 치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한편, 팔뚝에 놓는 주사는 대부분 혈관주사이기에 주사를 맞은 후, 솜으로 세계 문지르면 멍이 생기므로 문지르지 말고 꼭 눌러주는 것이 좋다.


##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엉덩이 주사

우리가 흔히 맞는 엉덩이 주사는 근육주사다. 엉덩이 근육에는 많은 혈관과 림프샘 등이 존재하기에 혈관에 직접 주사를 놓지 않아도 주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피하조직에 손상을 주는 약물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주사를 맞은 뒤 살짝 눌러주면 흡수가 더 잘 되기에 예방접종, 진통제 등 약을 빠르게 주입해야 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12개월 미만 영아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엉덩이 주사를 놓지 않는다. 또 엉덩이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는 좌골신경이 있어 성인도 이 부분에 주사를 맞으면 마비가 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을 때는 힘을 빼는 것이 좋다. 근육이 경직되면 주삿바늘을 넣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사를 맞았다면 주사 맞은 부위를 살살 문질러주는 것도 좋다. 약효를 잘 전달되는 것은 물론 멍친 부위가 풀리기 때문이다.

### Tip 팔 주사와 엉덩이 주사의 차이점

종류	사용 목적	활용처	주의사항
팔 주사	응급상황, 장기간 약물 치료할 때 등	수액, 수혈, 약물 투여, 중심 정맥 혈액 채취 등	주사를 맞은 뒤 문지르지 말 것
엉덩이 주사	약을 빠르게 주입해야 할 때	진통제, 예방접종 등	주사를 맞을 때 힘주지 말 것



바다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바다 건너, 우리는 어떤 세상에 닿게 될까요?



## 정부 해상수송력 확충 방안의 배경과

## 경제적 파급효과

지난 4월 정부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으로 약 3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4천만 톤으로 확충하고 국적선사 선대를 현재의 120만 TEU 규모에서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려 현재 세계 6위에 머물고 있는 해운력을 4위(Top 4)로 끌어올리는 해상물류 및 공급망강화안을 발표했다.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무역성장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 원이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1천억 원 등이다. 이 방안은 '22년 11월에 마련된 3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후속한 것으로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상물동량은 교역량에 따른 파생수요이다. IMF 자료에 의하면 '23년 세계무역성장률 0.9%에 대비 선박량 증가율은 7.7%, '24년에는 무역성장률 3.5%에 선박 증가율은 6.9%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률에 따라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박량 증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선제적 해운산업강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향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률에 따라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박량 증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2.11)**

위기대응펀드	1조 원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0.25조 원
공공선주사업	1.5조 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0.24조 원
<b>계</b>	<b>2.99조 원</b>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24.4)**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0.25조 원
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	2.03조 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	1.1조 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0.1조 원
<b>계</b>	<b>3.48조 원</b>



## 해운산업강화 방안의 배경

첫째, 상황위축에 따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글로벌 선박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분쟁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팬데믹이 끝난 '22년 3,410에서 '23년에는 1,006, '24년 1,700선 전후에 머물고 있으며, 건화물 운임지수(BDI)도 '22년 1,934에서 '23년 1,378, '24년 1,600선 전후에서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해운시황은 호황기보다는 불황기가 긴 사이클을 보인다. 작금의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UN의 2050년 탄소중립정책 등 날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IMO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Indicator) 즉, 선박의 톤-마일당 운송에 배출되는 CO<sub>2</sub> 양의 규제, EU의 탄소배출권 규제 및 대형화주와 선박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요구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기준으로 18척에 불과한 선박에 친환경 연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해운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정기선의 경쟁체제인 글로벌 해운동맹은 기존 3강 체제에서 새로 재편되고 있다. 즉, 세계 제2위 덴마크 머스크와 5위의 해운선사인 독일 하파그로이드가 '25년 2월경 '제미나이 협력'의 이름으로 새로운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점유율 변화가 불가피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국적선사인 HMM이 속해 있는 기존의 디 얼라이언스 동맹(하파크 로이드, 원, HMM, 양밍)의 시장점유율이 18.4%에서 11.4%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영업망이 급격히 위축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 수출입 물류망 경쟁력 제고이다. 해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2년 환적을 제외한 우리나라 수출입 해



**역사적으로 해운시황은 호황기보다는 불황기가 긴 사이클을 보인다. 작금의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물동량은 10억8백만 톤(운임부과기준)에 달하며 이에 대한 국적선의 수송량은 113백만 톤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약 895백만 톤은 외국적선에 의해 운송되고 있어 국적선의 수송 분담률은 약 13%에 불과하다. 지난 팬데믹 시절 글로벌 공급망 왜곡이 발생하였을 때 선박 부족으로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적기에 선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물류비를 감내함으로써 입은 피해는 막대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선대 확충은 필요한 실정이다.

###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작금의 글로벌 해운시장은 운임하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세계 2위 머스크가 1만 명의 고용인원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생존이 치열한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규모 선대 확충 등 투자정책은 불황이 심화할 경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날로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에 부응하며 국가물류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는 국적선사들에게 위기 속의 질적 성장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국가경제 발전에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첫째, 서비스 산업 중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운업은 항만, 조선업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제화물 운송의 경우 해운 비중은 99.7%에 이르며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30%(50조)를 차지해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 1위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품의 국제운송을 해외선사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서비스수지 적자를 확대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해운수지 흑자 규모가 운송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정도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90% 이상의 해운 4대 강국인 그리스,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할 때 한국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대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산업 간 전후방 연쇄효과에 의해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에 커다란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해운업의 활력은 조선업과 항만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한국은행산업연관표를 참조한 연구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해운과 항만에서 각각 9.4%와 8.1%를 차지하며, 취업자 수도 해운업에서 3만5천, 항만업에서 4만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전방효과보다 후방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다른 산업의 중간재를 투입하여 해당 산업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유형으로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약 1.18로 나타나 전산업의 평균 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셋째, 수출입의 제조업 지원산업으로서의 역할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수출의존형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운물류는 중간수요적 원시산업으로 분류되고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최종수요 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로 구분할 때 해운업은 국내 생산활동에 있어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여러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해운업을 중간투입물로 하여 산출되는 산업, 즉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의 친환경 해상수송력 확충 방안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국가의 국제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위기 시 경영안정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고될 것이며 국가경제 발전의 기간산업으로서 더욱 공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수출입 기업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른바 무역조건에 있어서 수입품은 FOB, 수출품은 CIF 등으로 국적선대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상생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 해상수송력 확충 방안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국가의 국제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위기 시 경영안정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음악과 기술의 융합

‘버추얼아이돌’이  
뜨는다!



# Virtual Idol

버추얼아이돌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로 만들어진 아이돌을 뜻한다.  
 최근 버추얼아이돌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K팝의 융합으로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광고 및 콜라보레이션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버추얼아이돌 그룹 PLAVE(플레이브)가 지난 3월 초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MBC ‘쇼! 음악중심’에서 플레이브의 신곡 ‘WAY 4 LUV’로  
 1위에 등극했는데, 이는 버추얼아이돌 역사상 최초다.

플레이브의 그간 기록을 살펴보면 버추얼아이돌 팬덤을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긴 어렵다. 플레이브의 두 번째 미니앨범 ‘ASTERUM : 134-  
 1’은 음반 초동 판매량이 56만 장을 넘어서며 자신들의 ‘커리어 하이’를 찍  
 는 기염을 토했다. 플레이브는 또한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료해 버추얼아이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K팝과 메  
 타버스의 확산으로 배출된 버추얼아이돌이 대중 사이에서도 인지도를 높  
 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출처: 버추얼아이돌 그룹 PLAVE



### 버추얼아이돌 전성시대

이렇듯 최근 K팝 산업에서 급부상한 버추얼아이돌은 사실 30년이 넘는 역  
 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최초의 사이버가수 ‘아담’ 이후 2001년 5명  
 의 실제 멤버와 1명의 사이버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나스카’, 2012년  
 보컬로이드(Vocaloid) 캐릭터가수 ‘시유’에 이르기까지 가상세계 아이돌에  
 대한 시도는 계속됐다.

국내 버추얼시장은 그간 2D 캐릭터를 좋아해왔던 팬층을 기점으로 서서히  
 인기몰이를 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버추얼아이  
 돌 그룹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  
 드’에서 만들어진 ‘K/DA’, ‘이세계아이돌’ 등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이 프로듀싱한 버추얼걸그룹 겸 스트리머 그룹인 ‘이세계아이돌(이





4인조 걸그룹 '메이브': 출처: 넷마블



하 이세돌)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아프리카TV에서 데뷔 방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첫 타자인 '비찬'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순서인 '릴파'까지 약 5만 명의 평균 시청자 수를 기록했으며,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고세구'의 동시 시청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 물이를 했다.

앞서 지난해 '지스타2023' 개막 첫날인 지난 11월 16일 넷마블이 지스타에서 이세돌 멤버 '릴파'와 선보인 무대 행사 온라인 방송이 트위치 한국 동시 간대 스트리밍 시청자 1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틱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중계된 온라인 방송도 동시 시청자 약 1.6만 명을 기록하며 버추얼셀럽의 영향력을 독특히 증명했다.

가상아이돌의 성공사례가 쌓이면서 연예기획사들이 버추얼아이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 25일 데뷔한 'MAVE:(메이브)'는 넷마블F&C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한 4인조 가상걸그룹이다. 메이브는 데뷔와 함께 'MAVE: 또 다른 세계'라는 웹툰을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편에 연재했다.

다만 이들 버추얼아이돌이 시 기술로 이루어진 '순수' 버추얼아이돌이라면,

**가상아이돌의  
성공사례가 쌓이면서  
연예기획사들이  
버추얼아이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5인조 버추얼 보이 그룹인 플레이브는 결이 조금 다르다. 멤버마다 실제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다 현실과 밀접한 버추얼 아이돌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션트래킹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 등을 통해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동작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몰입감과 공감대 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버추얼 아이돌이 아이돌 스타의 음주운전, 마약 등 사건·사고나 ‘군백기(군입대 기간 중단)’, 열애설 등의 이슈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성 팬덤에 염증을 느낀 팬층을 빠르게 확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투자 대비 성능도 뛰어나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당당한 브랜드 모델로 수익활동에 나선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다. 특히 게임업계에서 버추얼 휴먼은 인게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영상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 접목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디지털 아바타 스킨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과 같은 상품 판매까지 잠재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버추얼 아이돌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품을 구입한다. 성공적인 마케팅 선례는 버추얼 아이돌의 시장 가치를 보여준다. 또 실제 아이돌이나 스타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한 버추얼 아이돌은 국내외에서 멀티 산업 브랜드의 파트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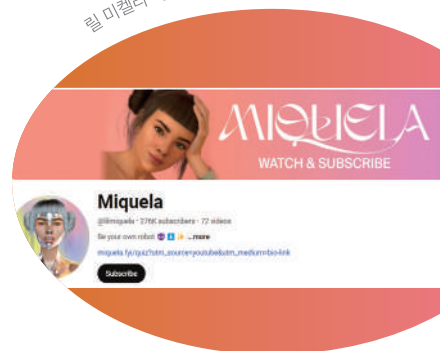
중국 상하이 공과대학이 지난 2022년 발표한 ‘버추얼 아이돌 특성이 소비자의 의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버추얼 아이돌의 인기도, 동질성, 관련성 및 의인화는 대규모에서 소규모까지 고객의 구매 의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의 많은 회사가 30개 이상의 현지 버추얼 아이돌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릴 미켈라의 패션 브랜드 콜라보를 꼽았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이자 팝 가수인 릴 미켈라는 설정상 19세 미국 LA 출신 브라질계 미국인 여성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04만 명, 유튜브 구독자 27만 6,000명, 인스타그램 게시물 광고 하나에 1,000만 원으로, 2020년 기준 한 해에만 벌어들인 돈이 130억 원으로 알려졌다. 릴 미켈라는 루이비통, 샤넬, 버버리 등 다수의 럭셔리 브랜드와 성공적으로 협력했다. 릴 미켈라는 수많은 패션 브랜드 콜라보 외에 자신의 인기를 사회적 대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로 인해 2018년

모션트래킹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 등은 몰입감과 공감대 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릴 미켈라 출처: 유튜브



타임지가 선정한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버추얼아이돌의 부상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지난 3월 더현대 서울에서 한 달간 순차적으로 진행한 버추얼아이돌 세 팀의 팝업스토어에 10만 명 고객이 몰렸다고 밝혔다. 더현대 서울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세계아이돌’, ‘스텔라이브’, ‘플레이브’를 한데 모아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출이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멤버와 같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홀로그램 버스, 단독 영상 상영 등 오프라인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은 지난 4월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버추얼아이돌 플레이브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버추얼아이돌로서 플레이브의 스토리에서 발견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라는 공통의 키워드가 이색적인 모델 선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메디힐은 플레이브와 함께 향후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전 세계 최초로 기내 안전 비디오에 버추얼휴먼을 출연시켰다. 승객은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F&C의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만든 4인조 버추얼결그룹 ‘메이브(MAVE)’, 승무원은 버추얼휴먼 ‘리나(Rina)’다. 다양한 연령대 및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고객 눈높이에 맞춰 버추얼휴먼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세련된 영상미로 승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청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For more information  
to the safety informat  
선 앞 또는 옆 주머



버추얼결그룹 '메이브'



대한항공 기내 안전 비디오 속 메인

mation,  
tion card in the seat pocket  
니 속의 안내문을 참고



버추얼아이돌 최초의 팝업스토어 오픈



### 버추얼아이돌의 세계적 성장 가능성

버추얼아이돌은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면서 경제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전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조 원 규모인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연평균 36.4%씩 성장해 2030년에는 7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버추얼아이돌은 한국을 넘어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플레이브의 경우 2집 미니앨범으로 일본 오리콘차트 주간 앨범 랭킹(2월 26일~3월 3일)에서 14위를 달성하면서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메이브는 지난해 데뷔와 함께 공개한 타이틀곡 ‘판도라’ 뮤직비디오가 약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등 국내외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지화 노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들의 글로벌 확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버추얼아이돌의 개발과 유지는 진보된 기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과 모션캡처, AR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버추얼아이돌의 상호작용을 더욱 정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표현과 실제와 같은 움직임, 그리고 향상된 상호작용은 팬 참여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흥미를 지속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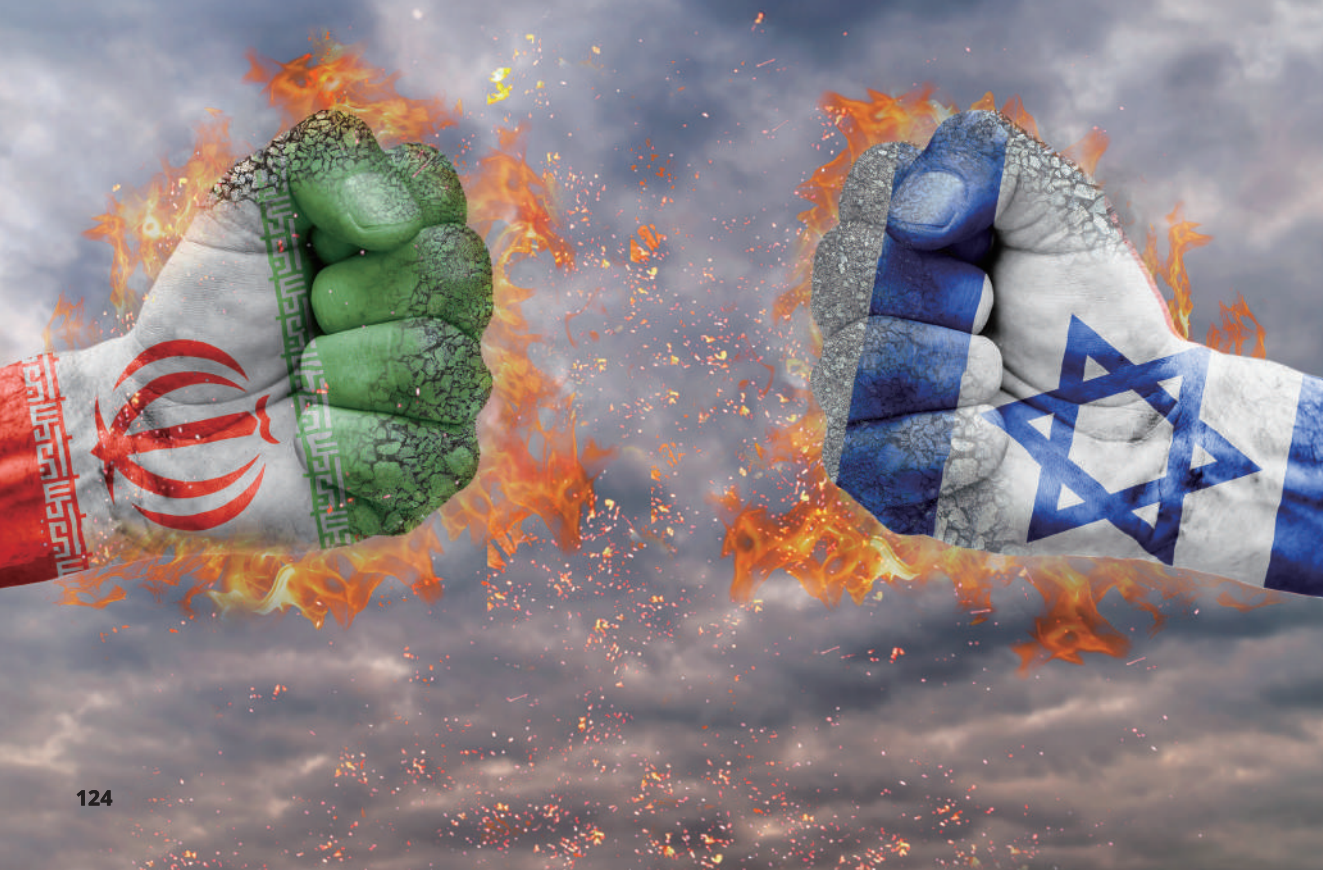
이러한 버추얼휴먼의 기술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대응을 넘어 기존의 콘텐츠를 뛰어넘을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추얼아이돌은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을 결합하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면서 경제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 이란-이스라엘 상호 타격과

## 주요 원자재 가격 전망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을 보면 곡물 가격은 하락세이나, 다른 주요 원자재는 달러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양상이다.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금리인상은 없고 고용지표를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저울질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4.7%를 넘어 치솟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점을 찍은 모양새다. 이하에서는 이란-이스라엘 상호타격과 주요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전쟁과 금리인하 지언이 낳은 자산 시장 역설

국제 석유거래는 보통 달러로 표시한다.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유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달러와 유가 간 이런 부(負)의 상관관계도 약화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져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5월 이후 달러 초강세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간 중동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상호 타격으로 옮겨가 달러 수요를 늘렸다.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대개 하락한다. 달러가치 상승으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많아서다.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강세 속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달러 약세를 미리 반영하던 차에 확전 가능성이 불을 붙인 것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에 스위스가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겼다. 시장은 그간 유럽중앙은행(ECB)이 Fed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는 미국의 금리인하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더해 달러 강세가 오래갈 수 있다는 공포가 얼마 전까지 시장에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에너지와 주요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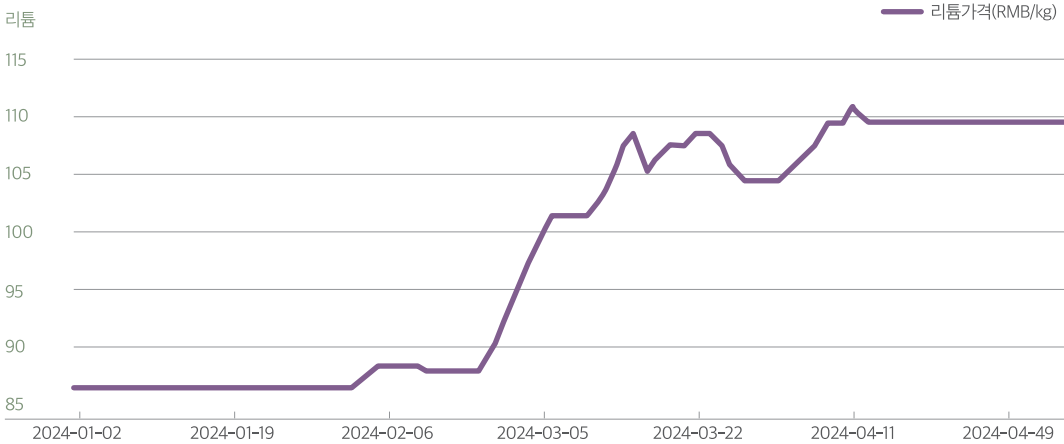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자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제 시장에서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금값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 그간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중앙은행 및 헤지펀드 등도 금 투자로 몰렸다. 금 투자는 14%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뉴욕증시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웃돌기도 했다. 중동 갈등이 완화되자 안전 피난처로서의 금 수요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크게 누그러졌다. 국제 투자은행은 금값 상승에 베틀하는 분위기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2024년 연말 금값 예상치를 기존 온스당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안전자산 수요가 올해 내내 금값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노트

를 보면 Fed의 금리인하, 미국 대선과 방만한 재정 상태가 금의 강세라는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은 이렇다. 2024년 국제 유가가 석유 수요의 증가세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달러화 약세 등 상승 요인과 비OPEC+의 생산 증가, OPEC+의 단계적 감산 완화 등 하락 요인이 교차하며 전년과 비슷한 \$83.42/배럴에서 형성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화의 향후 전망이라고 하겠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 초강세를 발생시킬 만큼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와 수급이 향후 유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8일 발표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의 예상외 큰 폭 감소' 뉴스로 유가의 낙폭이 일부 만회하는 기술적 반동이 시현됐다. 시장의 수급 요인에 유가도 움직이고 있다. OPEC+ 회의에서의 감산 연장과 주요 원유 수입국가의 수요 증가는 유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원유 수입량은 하루 1,088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했다.



## 2024년 탄산리튬 가격 추이



### 리튬과 니켈 가격 반등의 속사정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미국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잇달아 전기차 생산·투자 속도 조절 방침을 내놓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원자재 가격 불안은 전기차 소재 업종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들어 리튬 과잉 공급에 따라 당분간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란 전망이 있었으나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리튬은 원재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22년 초 톤당 58만 위안(약 1억1천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5월 현재 리튬은 톤당 11만 위안 수준으로 1월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한 수준이다. 1년 단위로는 여전히 40%대 폭락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수산화리튬이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니켈과 합성이 쉬워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다.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리튬과 합성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는 탄산리튬 대신 녹는 온도가 낮은 수산화리튬 사용이 일반적이다. 우측 하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니켈 선물 가격은 올해 1분기 바닥을 친 후 상승했으나 1년 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20% 하락한 수준이다.

고금리 지속, 유럽 지역 전기차 수요 회복 부진, 주요 완성차업체의 전동화 속도조절 등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 구리 가격의 상승 원동력은

구리 가격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톤당 8,000~8,500달러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2024년 3월 이후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4월 톤당

10,0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구리가격이 2024년 들어 상승한 배경으로는 남미 구리 광석 공급 감소, 중국의 제련소 가동 축소 움직임, 주요 경제지표 개선, 투기성 자금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어디 이러한 요인뿐일까? 구리는 전기차와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 에너지 전반에 활용되며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씨티은행은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4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미 CNBC방송은 구리 가격이 공급 차질과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촉발된 수요 증가로 20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가 주목 받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데이터센터 확장이 구리 수요 증가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뽀뽀한 구리 공급이 심화할 예상인데 데이터센터향(向) 수요 비중도 확장되고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챗 GPT와 암호화폐의 팽창은 수요를 한층 더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동지역의 정세는 당분간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향후 원자재 가격은 금리인하와 경기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 와중에 달러 가치 하락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니켈 선물 가격(1년 추이)

Nical(USD/T) 18706.000 -429.5(-2.24%)



## 상속을 대비한다면 ‘유언대용신탁’ 고려는 필수!

고령화시대 필수 준비 사항인 상속과 증여에는 신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명확히 알고 본인의 자산 관리에 활용해 보도록 하자. 다만, 유류분 적용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추후 법원의 판결 및 민법 개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A WILL-FOR-WILL TRUST







## 1

###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신탁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 관리, 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173%, 미국은 94%로 신탁을 활용하는데, 대한민국은 53%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 및 부동산신탁 위주로만 발전되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신탁업의 혁신을 통해 고령화시대 신탁의 다양한 장점인 유연성, 확장성을 강조하고 이에 맞춰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고령화시대의 필수 준비 사항인 상속과 증여 등 자산 이전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함이 크다.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주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써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연과 차이를 구분해 보고 장점을 취해서 가족 내 상속 고민을 해결하는 데 활용해 보도록 하자.



## 2

### 유언보다 장점이 많은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은 상속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개인 재산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유언장 작성 시 가장 꺼려로운 부분 중 하나이다. 만약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재차 보증인 2명의 공증을 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에 반해 신탁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대부분이 정리될 정도로 아주 간결하다. 유언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충족하지 못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증의 불편함이나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 및 분실의 위험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의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

## 3

###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금융기관처럼 전문자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신탁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나아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 자산 관리 능력이 없는 이를 대신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형태의 신탁 형태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후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위탁자는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명시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사후에도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이행시킬 수 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하급심 판결도 있었고,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정 지어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유류분을 우회·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추후 상급심의 판결 및 민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고객님의 뜻 그대로 IBK가 지켜드립니다!

(2024.5월 현재)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2013호(2024522) 게시기한: 2025.05.2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904호(20240521) 게시기한: 2025.05.20.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극화 시대’ 아파트 전세가 선도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최근 9개월 연속 상승  
전세가격 상승 원인은 주요 이슈 3가지, 핵심 이슈 1가지로 구분  
장단기 공급 우하향 확정, 실수요층 전세 → 매매 갈아타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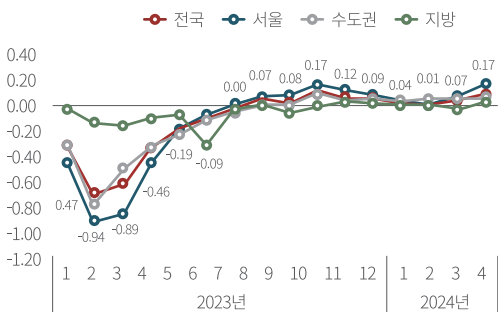
사회문제로 발전한 ‘전세사기’, ‘역전세’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나브로 최근 주택 시장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급변 중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전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비아파트 유형은 수요층 선호도가 급감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은 역전세를 걱정하기는커녕 앞으로 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쏟아진다. 이처럼 급작스러운 전세가격 상승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세가격 상승 이후에 시장에서 목도하게 될 장면들이 무엇인지 사전 점검해 보자.

### 전세가격 반전의 요인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난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2법(상한제, 갱신권)은 전세 시장 곳곳에 큰 생채기를 냈다. 실수요만 있는 임대차 시장에 거품 가격이 형성된 원인을 제공하면서 전세사기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서울 지역부터 전세가격 하락세가 멈췄고 이후 9개월째 상승세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완만한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었던 주요 이슈 3가지와 핵심 이슈 1가지를 살펴보자.

#### 월간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주) 월간 : 전월말 대비 기준  
 자료 : 부동산R114

#### · 주요 이슈 하나. 임대인 대상의 역전세 반환대출 정책 효과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했다. 유동성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으로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중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이다. 대출한도 책정에서 임대인들이 요구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했으며, 기존 전세금과 새로운 전세금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R114의 전세 시세에 따르면 대책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부터 그 즉시 전세가격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확인된다.

#### · 주요 이슈 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임대차2법 ‘벌써 시행 4년 차’

2020년 임대차2법이 도입된 이후 전국 전세가격은 2020년에 12.47%, 2021년에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36.31%로 단기 폭등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2022년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월세 시장에 임대차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 사이에는 12% 떨어지며 전세가격의 되돌림도 상당했다.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은 거품 형성 가능성이 제한적인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제도 변화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 거품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2법 제도 시행 이후 상승기와 하락기를 모두 경험한 상황인 만큼 제도 시행 4년 차에 해당되는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에 적응했다고 평가된다. 즉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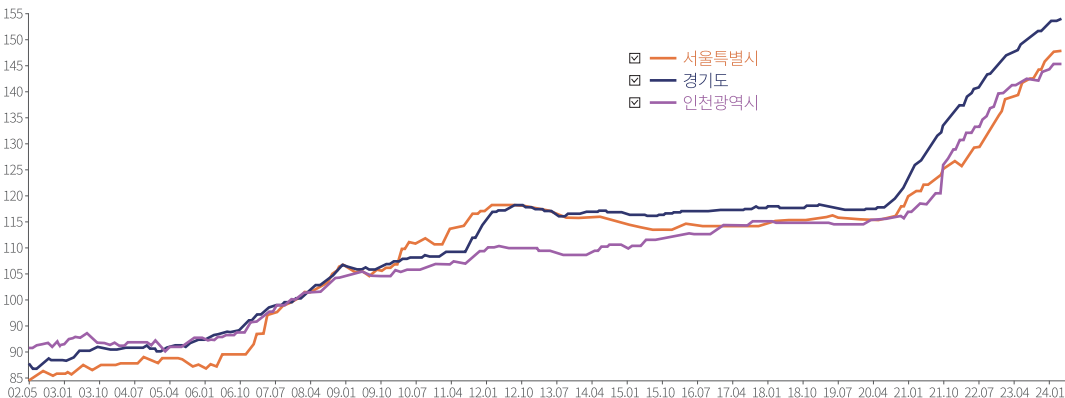
· 주요 이슈 셋. 전세가격은 급락했지만 대칭점에 있는 월세가격 급등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사이 특이 현상이 발생했다, 바로 임대차 시장의 대칭점에 있는 월세가격은 선호도가 높아지며 급등했다는 점이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규모가 다양하므로 지수 형태로 변환하여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 급락기인 2022년과 2023년 사이 서울 지역의 월세가격 지수는 126에서 145로 우상향했다. 지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평균 15% 급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 증가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월세시장으로 이탈했던 수요층들이 월세가격을 밀어 올림에 따라 현재는 전세시장으로 다시 회귀 중이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월세 계약 비중이 1 대 1 수준으로 대등하게 변화된 만큼 상호 경쟁으로 밀고 당기는 관계를 형성하며 동반 오름세를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 이슈. 장단기 공급 우하향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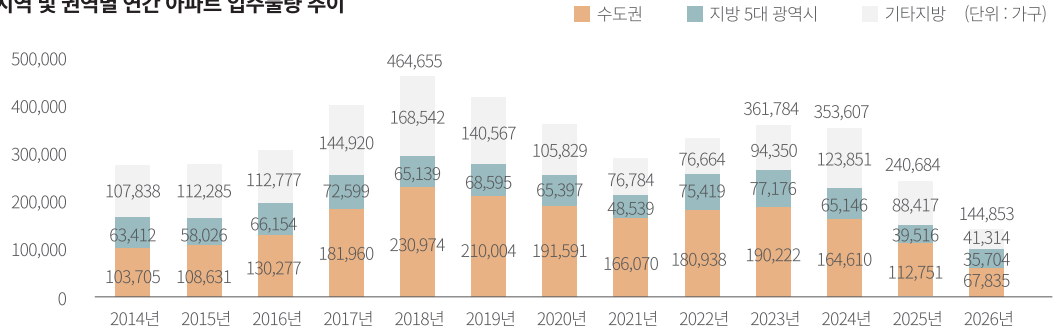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이슈들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결정한 주요 이유지만 2024년에 전셋값이 오르는 핵심 이유는 아니다. 과거부터 전월세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는 ‘공급 물량’이 전부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당장 거주 공간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신축 입주나 기존 매물 등 수급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 축소 이슈가 2026년까지 장단기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2023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급감한 주택 인허가가 2024년 분양물량 축소로 연결 중인 가운데, 분양 이후 3년 여의 공사기간을 끝내고 입주하는 아파트 또한 크게 줄어 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공급 축소 영향으로 9개월 연속 오른 전세가격이 상당 기간 추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해당 이유로 앞으로의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예상대로 전세가격이 1년을 넘어 2년, 3년 연속 오르면 그 결과는 어디로 이어질까? 최근 서울에서의 아파트 거래량 추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파트 월세지수 장단기 추이



자료 : 부동산R114

### 지역 및 권역별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주) 조사시점 : 2024년 5월

자료 : 부동산R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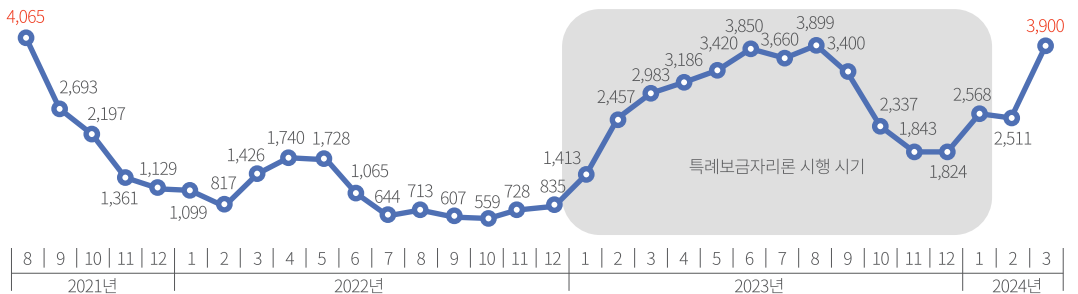
### 수요 대이동 전망. 실수요층 전세→ 매매 갈아타기 본격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3,900건(2024년 4월 말 조사 기준)을 기록하며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년은 정부 주도 대출규제 완화 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6~9억 이하, DSR 배제 등)이 시행된 시기라는 점, 과거 2021년 시장은 가격 급등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거래량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등) 분위기 속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9개월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과 높아

진 신축 분양가(공사비 인플레이션) 부담 등이 커지면서 안정적 주거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무주택 실수요자 선택지는 전월세, 신축분양, 구축매매 3가지 길에서 가능한데 구축매매 외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서울 중저가 지역 내 근매물들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대출한도, 이자 비용 등)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상 확정된 중장기 공급 축소 이슈를 감안할 때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쏠려 있는 아파트로의 대이동, 즉 물건 유형별 가격 양극화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거래량 추이

(단위 : 건)



(주1) 계약일 기준 (주2) 2024년 4월말 조사 기준

자료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R114 편집

여름 햇살처럼 빛나는 젊음  
르누아르  
'몰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몰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1876년, 캔버스에 유채, 175x131cm, 오르세미술관, 파리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를 보면 저절로 싱그러운 초여름의 햇살 그리고 그 햇살만큼이나 환하고 밝은 젊음이 떠오른다.

그림은 몽마르트르의 카페 겸 유원지인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 열린 주말 파티를 담고 있다. 가로 175cm, 세로 131cm의 큰 캔버스 가득히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RENOIR

## 르누아르 작품의 주 무대였던

### ‘물랭 드 라 갈레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야외의 댄스 홀,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사이로 환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을 받은 처녀들의 얼굴에서는 투명한 광채가 반사된다. 그림의 한가운데 있는 처녀들은 오른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무리의 남자와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듯하다. 두 처녀는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고 눈을 빛내고 있다. 우리에게 뒷모습만 보이는 남자가 무언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아가씨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모양이다. 테이블 다른 편에 앉은 남자의 친구들은 친구와 아가씨들 사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설레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이들의 뒤편으로는 모자를 쓴 한 무리의 남녀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고 그 뒤로는 댄스에 열중한 아가씨들의 흥조 락 얼굴이 보인다. 댄스 홀의 바닥에서 동실동실 떠다니는 햇빛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젊은이들의 감정과 파티의 열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림의 무대인 물랭 드 라 갈레트는 현재도 여전히 몽마르트르에서 영업하고 있다. 1873년 르누아르는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 작업을 위한 화실을 하나 세내어 들어갔다. 지금의 몽마르트르는 파리의 명소 겸 ‘핫 플레이스’이지만, 르누아르가 머물던 그 당시의 몽마르트르는 시내에서 먼 변두리 동네였다. 언덕에는 포도밭이, 풀밭과 풍차들 사이에는 가난한 화가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던 카페들이 있었다. 새 화실로 짐을 옮기고 심기일전한 르누아르는 그림의 주제를 찾아 몽마르트르를 거닐었다. 그의 눈에 띈 대상은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댄스 파티였다. 르누아르는 파티의 분위기를 생생히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파티에 온 진짜 손님들을 모델 삼아 그림을 그렸다. 환하게 빛나는 야외 유원지의 들뜬 분위기와 드레스를 차려 입고 댄스 파티를 찾아온 아가씨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르누아르는 1년 가까이 물랭 드 라 갈레트를 드나들며 스케치를 계속했다.

## 한발 늦게 드러난 그림의 진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이었지만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가 출품된 1877년 제3회 인상파전의 반응은 냉담했다. 평론가들은 이 그림에 대해 ‘왜 사람들이 폭풍우 치는 하늘과 구름 위에서 춤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인상파 지지자들은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르누아르의 친구들은 ‘무지개 같은 반사광이 그림에 가득 차 있다’는 칭찬으로 르누아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동료 화가이자 인상파의 주요 후원자였던 구스타프 카유보트는 전시회 직후 이 그림을 사들였다. 이후 카유보트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했고, 그림은 카유보트의 사망 후인 1896년 프랑스 정부로 넘어갔다. 현재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인상파의 작품들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그림 속에는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가 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한 가운데에 자리한 아가씨들의 발그레한 뺨과 화사한 표정 덕분에 아닐까? 이 처녀들은 실제로 르누아르의 이웃사촌들이었다. 당시 몽마르트르에서 살던 처녀들은 부유한 부인들의 드레스에 수를 놓거나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며 얼마 안 되는 보수를 받는 처지였다. 한 주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이들은 주말의 파티를 위해 아껴 둔 드레스를 꺼내 입고 물랭 드 라 갈레트를 찾았을 것이다. 언뜻 보아도 이들이 걸친 드레스나 장신구들이 고급품은 아니다. 그러나 아가씨들의 상기된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오른쪽 끝 남자의 순진한 시선은 이들이 다시 오지 못할 젊음의 한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옷차림과 장신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초여름 햇살처럼 싱그러운 젊음이 있고, 그 젊음은 화가의 화폭에서 어떤 보석이나 명품보다 더 찬란한 광채를 내며 빛난다.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의 르누아르 역시 그림 속 모델인 남녀와 엇비슷한 처지였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화가는 열두 살 때부터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파리에서 화가 수업을 할 때도 부유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곤 했다. 고대하던 살롱전에서는 계속 낙선했고 모네 등이 주도한 인상파 전시회에서도 르누아르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다. 1880년대에 서서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1881년, 캔버스에 유채, 129.5x172.7cm, 필립스미술관, 워싱턴 D.C.

히 인상파의 가치가 알려지고 뉴욕의 부호들이 인상파의 그림을 사면서 르누아르는 비로소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속 젊은이들의 모습 어디서도 화가의 불안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르누아르는 천성적으로 명랑한 성격이었고 불안과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르누아르의 철학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에도 잘 드러나 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의 기쁨, 모든 사람이 서로 어울려 편안하고 느긋하게 즐기는 파티의 즐거움, 햇빛과 음악, 사랑스러운 천진함 등의 정서가 그의 화풍과 어우러져 행복의 에너지로 발현되고 있다.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그 어떤 불안과 가난도, 앞날의 불투명한 전망도 젊음의 빛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림이 담고 있는 풍경은 젊음의 영원한 빛이다. 화가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은 언제나 축제일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처럼, 화폭 속에서 환히 웃고 있는 젊은이들처럼 말이다.



# “행복이란, 매 순간 내 오감이 만족할 때 오는 것 아닐까?”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中

긴 시간 꾸준히 걸어온 우리는 매일 익숙한 풍경을 마주합니다. 꾸준히 살피온 주변은 무언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특별한 하루의 기쁨은 평범한 일상에 깊은 숨을 불어넣을 때 탄생합니다. 익숙하게 오가던 장소에서 전에 없던 장면을 발견하고 스쳐 지나갔던 물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보세요. 매일 반짝이는 하루를 꿈꾸기보다 사소한 이야기들을 소중히 여기며 은은하게 나이 든다면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

2024년 <아름다운 은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테마를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호의 테마는 ‘슈퍼 에이지’로 나이 들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에 대해 전합니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뜻하는 슈퍼 에이지(Super-Age).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 고령 인구 비율 20.6%를 예상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회의 시선에 주목해보자.

## 아주 좋은 기회의 시대 ‘슈퍼 에이지’ 시대가 온다

###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국 50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인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함으로써 7년만으로 가장 빠르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유로 전문가 들은 한국의 길었던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낮은 출산율 때문 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뜻하는데 당시 10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 는 시점이 왔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기별 출산율은 1분기 0.82명, 2분 기 0.71명, 3분기 0.71명, 4분기 0.65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 출산율이 더해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겼다는 이야기다.

S  
uper



A

g

e



2050년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인구의 43%를 넘어설 것을 전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는 어떤 사회를 초래하게 될까? 과연 사회적으로 문제만 일어나고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기회는 있는 법.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략 연구 및 자문 회사인 더 슈퍼 에이지(The Super Age)의 창립자이자 미래학자인 브래들리 셔먼. 그는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의 책 <슈퍼 에이지 이펙트>에서 주장한다. 더불어 그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년층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초고령화 시대 속 노인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 슈퍼 에이지 이펙트 (Super-Age Effect)

이전까지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경제침체, 여러 노인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왔다. 이러한 기존 입장과 달리 브래들리 셔먼은 초고령화 시대 속 경제 주 인공은 MZ세대가 아닌 ‘시니어’들, 즉 슈퍼 에이지 세대가 될 것이며, 이들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인구의 고령화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그의 나라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출생률 감소, 택시 기사와 초고령화, 은퇴 비율의 증가 등 한국 사회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시대도 작가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더욱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 195개 나라 중 35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 에이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소비시장일 것이다. MZ세대가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현재와 다르게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소비 주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년층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을 ‘엘더노믹스(Eldernomics)’라고 부른다. 실제로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 중 3분의 2가 50세 이상이며, 애플워치의 사용자 평균 연령은 42세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니 저자는 엘더노믹스 트렌드는 새로운 시대이자 기회이며 이를 따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95개  
나라 중 35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 에이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새로운 소비 주축,  
시니어 시프트

이러한 흐름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별도 조건 없이 ‘조부모 육아휴직’을 입법화했다. 또 \*나이 든 직원에 대한 배려로 호주 은행 웨스트팩은 ‘손자녀 육아휴직 제도’를 업계 최초로 발표, 영국의 다국적 투자은행 바클리지는 고령층에게 견습생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대담한 견습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한다.

또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소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일본에서는 소비시장에서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며 MZ세대가 아닌 평균 수명이 길고 소비를 주도하는 여성 시니어에 주목한 마케팅을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50대 이상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으로 매출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사례가 많이 들려온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이자 해외 각국의 경제 사회상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 전환을 이야기하는 강정아 전문가도 그의 저서 <인사이트 마케팅>에서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등장하는 슈퍼 에이지 세대를 언급하며 지금의 4060세대는 이전 노인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이며, 이 슈퍼 에이지 세대가 돈을 갖고 있으며, 소비하는 인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러기에 마케팅 관점에서 그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이투데이, 2024.01.05 기사 참고



자신 스스로를 시니어로 인식하지 않는 점,  
누구보다 건강과 활기찬 생활에 관심이 많은 점,  
마음가짐과 행동을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젊게 갖는 점 등 요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답게 ‘젊음’과 더 어울리는 듯하다

슈퍼 에이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물론 초고령화 사회 속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브래들리 셔먼도 연금 수혜자의 은퇴 나이 조정, 정년의 폐지, 노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다양한 사회·경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단순히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의 연장을 지향하는 ‘슈퍼 에이지’는 결국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은퇴 후 주도권이나 재산 따위가 없어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뒷방 늙은이’는 지금의 시니어 세대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옛말’이다.

자신 스스로를 시니어로 인식하지 않는 점, 누구보다 건강과 활기찬 생활에 관심이 많은 점, 마음가짐과 행동을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젊게 갖는 점 등 요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답게 ‘젊음’과 더 어울리는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 속 가장 문제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노인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늙을 것이고 가족 구성원이 늙어감에 따라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급격한 변혁에도 맞서야 한다. 반면에 이런 엄청난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구축할 기회가 되어줄 것이며 그에 따라 슈퍼 에이지는 어느 세대에게나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고, 화합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 브래들리 셔먼, <슈퍼 에이지 이펙트> 中



# AI 금융 시대, 혁신과 그림자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금융의 만남은 글로벌 시장을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 전에 없던 ‘금융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시장에 더없는 혼란을 일으킬 ‘재앙’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AI와 금융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들여다본다.

### 글로벌 금융, AI 활용해 '레벨업'할까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금융권에서도 AI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뜨거운 화두다. 사실 금융 업종의 AI 기술 활용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이야기다. 이미 수년 전부터 챗봇, 상담 AI 등 대중 친화적인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왔고, 업종에 따라 이상 거래탐지, 신용평가 등 주요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업무에 접목했다.

그러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챗GPT를 활용해 10만 개 이상의 리서치 자료를 분석한 AI 툴을 개발해, 재무관리사 300명을 대상으로 AI 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내부 자산관리직원에게 AI 비서를 제공해, 더욱 고차원적인 금융 투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AI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또 'JP모건'은 대출계약서를 몇 초 만에 해석할 수 있는 AI 기반 계약 분석 도구인 'COIN 챗봇'을 만든 것을 비롯해, 4,000개에 달하는 AI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변화의 물결은 민간 금융사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까지 가닿는 분위기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해 AI를 활용해 금융 위기를 조기에 경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AI에 대한 금융 산업의 관심은 글로벌 투자은행 내 AI 조직 인사 정책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월 모건스탠리는 오픈 AI와 협업해 챗GPT 기반 직원용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만든 제프 맥밀런 수석은 AI 정책 총괄로 앉았다. 투자은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부문을 조직의 핵심 무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도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술 부문 부사장이었던 마르코 아르젠티를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굼직한 투자은행들이 조직 내 AI 사령탑에





무게를 실으며 시가 불러올 더 큰 변화에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방대한 자료 분석과 정리는 AI에게 맡기고, 고객을 관리하는 자문 업무에 힘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 금융사들이 AI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익숙한 AI 서비스인 챗봇만 하더라도 단순 질문을 해결하는 데는 일부 유용하게 활용돼 왔지만,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기술 환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늬만 ‘디지털 퍼스트’를 실행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망분리 규제’가 꼽힌다. 망분리는 금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과 단말기를 외부망(인터넷망 등)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다.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10년 전 국내 금융권에 도입됐다. 이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권의 해킹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AI 등 디지털 기술 개발에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었다. 최근에는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AI 투자를 둘러싼 논쟁

2010년대 디지털 자산관리가 금융권의 화두에 오르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주목받은 적도 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는 점에서 ‘만능’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투자자가 선택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종류나 투자 유형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는 일부 자산가가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 자문을 대신해주는 개념이라, 유수의 펀드매니저가 직접 관리해주는 포트폴리오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어렵다. 안정적인 수준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렇다면 AI 투자 시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최근에는 AI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기초지수를 설계해주는 ‘다이렉트 인덱싱(direct indexing)’이 시장 흐름을 바꿀 새로운 물결로 거론되고 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준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장점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AI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과 분석을 바탕으로 ‘나만의 ETF’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ETF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가까운 미래에 국내 시장에서도 다이렉트 인덱싱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아,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속속 뛰어드는 모습이다. 컨설팅 업체 ‘올리버와이먼’에 따르면 글로벌 다이렉트 인덱싱 시장 규모는 2020년 350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5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대화형 AI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알레한드로 로페즈리라 미국 플로리다대 경제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금융 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수익률 예측 방향이 기존의 무작위 예측 방식보다 훨씬 정확했다.



## 비용 대비 효율성과 리스크

한편으로는 AI에 투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술을 서비스에 제대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이 든다. 최근 이슈가 되는 초거대 AI, 생성형 AI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핀테크 업체를 비롯해 수많은 금융사가 너도나도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늬만 AI 기술’인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는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AI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AI를 통해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자리한다. 다만 당장 큰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금융 서비스에 AI를 접목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상품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거나 고객군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I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덩달아 높아질 운영 비용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챗GPT가 답변 하나를 내놓기까지 수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서 “컴퓨팅 비용이 눈물 날 정도로 커, 수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I의 고비용 문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초거대 AI는 어마어마한 전력 자원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운용에 일반 서버 3000대를 사용하는 전력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연적으로 높은 자원이 사용되는 만큼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별개로,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초거대 AI가 일으킬 혁신 뒤에는 그만큼의 그림자도 존재한다. 가장 큰 이슈는 AI의 신뢰성이다. 챗GPT에서 문제가 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이슈는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 편향성, 일관성 결여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위험 또한 AI 기술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다. 이런 이슈는 금융 분야 생성형 AI 알고리즘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예측을 잘못한다거나, AI 챗봇이 금융소비자에게 엉뚱한 투자 가이드를 해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다만 AI 활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금융의 혁신’은커녕 ‘신뢰 훼손으로 인한 퇴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AI 모델이 내놓은 결괏값의 책임 소재와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응 프로세스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 Profile.

글. 정초원

한국경제신문의 자매지인 <한경 머니> 기자다. 주로 경제, 금융, 투자를 주제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Millenium Seoul IM  
Health-care Cen

밀레니엄서울내과  
김민성 원장



# 보이지 않기에 중요한 위 위 건강의 적신호, 위궤양 파헤치기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에서 분해되어 몸속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 이렇듯 ‘먹는 것’과 밀접한 위 건강. 위염, 위궤양으로 우리의 위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삶의 질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장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장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많은지요?**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건강보험 심사자료 발표에 따르면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으로 내원한 인원은 약 1,036만 명으로 이 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성궤양 등이 78.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본다면 40~50대 중년층이 38.6%, 40대 이상 중·노년층은 68%로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진료 인원 3명 중 1명은 40~50대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장 질환은 중장년과 노년층 발생률이 높은데요. 그중 위염과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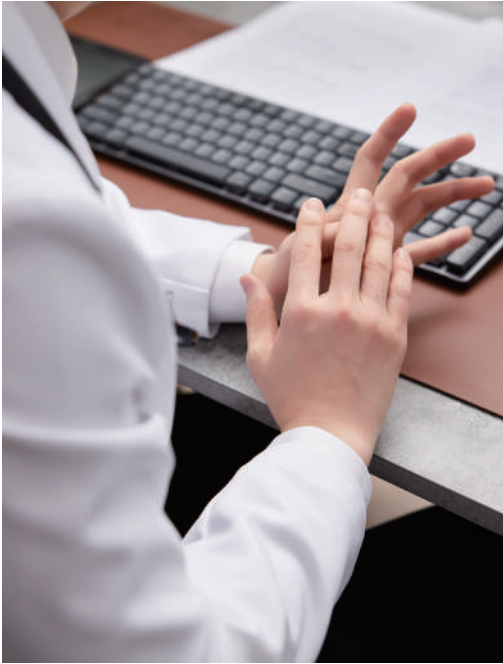
**위장 점막이 염증으로 파인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위는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층인 위 점막층의 손상은 위염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층인 위장 점막 하층까지 손상된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궤양은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 인자와 점막

손상을 유발하는 공격 인자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소화성궤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소화성궤양은 위궤양뿐만 아니라 십이지장궤양까지 포함한 용어입니다.

식도를 통과하여 위장에 도착한 음식물은 위산에 의해 잘게 부서진 형태로 소장으로 들어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필연적으로 위산, 각종 소화효소, 담즙, 복용한 약물, 알코올 등 세포를 손상시키는 공격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격 요인에 대해 생체 내에서 여러 단계의 방어 요인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깨질 때 위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궤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위궤양은 위산 분비가 증가하지 않아도 궤양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 원인으로는 위산 분비(공격 인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위장 점막의 병적인 변화에 의한 방어 인자의 감소가 위궤양 발생에 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궤양의 가장 큰 증상으로는 타는 듯한 상복부 통증이 있고, 음식을 먹은 후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중 감소,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증 감각이 예민하지 않



**위궤양이 무조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니 적절한 치료를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 분들은 내장 기관에 염증이 생겨도 직접적으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심해도 가벼운 소화불량 혹은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증상만으로는 차이를 구별하기가 힘드니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은 중장년층에서, 십이지장궤양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궤양은 공격 인자의 증가보다는 방어 인자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반대로 십이지장궤양은 공격 인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흡연, 과음 등으로 인한 위산 과다 분비가 십이지장궤양으로 나타나고, 중장년층에서는 만성적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약물 복용,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등으로 인한 방어 인자의 감소가 위궤양으로 나타나기에 연령대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 위궤양으로 내원한 경우, 흡연과 음주만 끊어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위궤양인 경우는 궤양 치료와 함께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지 않으면 50~60%로 위궤양이 다시 재발하기에 제균 치료 병행이 필요합니다.

**위궤양에 걸리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위궤양과 위암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을 동반한 위궤양이 있는 경우 위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위암 중 궤양 모양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위궤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 발견될 경우, 꼭 궤양 모양의 위암이 아닌지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위궤양이 무조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니 단순 양성 위궤양 같은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건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암의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기에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헬리코박터균과 동반한 경우, 제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균 치료에는 항생제가 2개나 포함되어 있는데,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호흡곤란)과 위장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제균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수면 중 속쓰림이 심할 때는 왼쪽으로 누워 자면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요.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위는 우리 몸 왼쪽으로 자리잡고 있어 왼쪽으로 눕게 되면 옆으로 공간이 생겨 위산이 위로 역류할 위험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수면 중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눕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자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 자세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는 어려우니 위산 역류라든지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심하시다면 약물치료를 권장합니다. 흔히 속이 쓰리다고 느껴지면 시럽 형태의 제산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제산제는 효과도 빠르고





공격 인자의 세기를 낮춰주는 약이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이고, 위산 분비가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산제를 먹어도 계속해서 속쓰림 증상이 있다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궤양 예방, 재발 방지, 위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 식습관엔 어떤 게 있나요?**

위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때 위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 비위생적인 음식 등이 있죠. 기름진 음식, 초콜릿, 탄산음료, 커피, 신 과일 주스 등 위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음식은 피하고, 흡연과 과음 또한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 특히 꼭꼭 잘 씹어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 토마토, 양배추 등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게 위 건강에 좋습니다. 흔히 익힌 식품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익힌다고 좋은 게 아니니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 그 자체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매운 거 드시고 속을 달래기 위해 우유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우유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염, 위궤양 예방 및 방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아니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 건강 중요성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관련 질환들은 모두 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와 완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내시경을 통해 위 관리가 필요하고, 먹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잘 기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노년층은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식도락을 누리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관의 건강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은퇴 후, 100세 시대까지 건강한 위장으로 삶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 김민성 내과 전문의
- 현 밀레니엄서울내과 원장
- 현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외래교수
- 전 국군포천병원 내과 과장
- 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임상강사
-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 Check list.

### 튼튼한 위!

### 삶의 질이 달라진다!

### 김민성 원장이 알려주는 위 건강 자가 진단법

- 1 상복부 통증이 있나요? 특히 식사 후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 ( 예 / 아니오 )
- 2 명치 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이나 통증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  
\*상복부 통증은 위궤양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마치 내부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지며 식사 후 또는 공복상태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 3 소화불량, 구토, 구역질 등의 증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
- 4 최근 식사량 감소, 체중 감소 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  
\*소화불량을 동반하면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증상이 있다면 위궤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5 흡연, 과음,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등 위 건강에 위험 요인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
- 6 자주 사용하는 약물이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아스피린, 항혈소판제제, 항생제, 진통제(해열·진통·소염제),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등  
\*중장년층의 위궤양 발병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약물 복용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장애 등 만성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위한 약물이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는 약물의 성분을 확인해보세요.

위 체크 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된다면, 위궤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권장합니다.

#### 위궤양을 완화하는 데 좋은 음식 3 Pick!



**양배추** 사과, 식초, 레몬즙으로 양배추·사과초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감자** 잘 씻어 껍질과 싹을 제거 후 강판에 갈아 감자즙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식사 30분 전,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데친 후 두부를 섞어 브로콜리 두부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 공간 컴퓨팅이 가져올 금융 경험 혁명

애플은 2024년 2월 '비전 프로'를 출시하며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컴퓨팅 개념을 제안했다. 이에 공간 컴퓨팅이 우리 일상, 특히 금융 경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공간 컴퓨팅이 앞으로 어떻게 금융 경험을 변화시킬 것인지 살펴보겠다.





*Spatial  
Computing*



애플 CEO 팀 쿡은 “비전 프로는 오늘 이용할 수 있는 내일의 기술이며, 향후 공간 컴퓨팅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전 프로를 보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온 구글과 비슷하게 생겼고, 메타(구 페이스북)의 퀘스트 시리즈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공간 컴퓨팅은 무엇일까? 공간 컴퓨팅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없애 공간을 생성, 확대,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공간 컴퓨팅은 기존 메타 퀘스트 등 기기들이 강조한 몰입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XR의 차세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공간 컴퓨팅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 혁신으로  
향후 우리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공간 컴퓨팅은 XR(확장현실)을 통해 구현된다. XR은 영

**모바일이 일상과 산업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일상과 금융 산업,  
그리고 금융 경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가상 유토피아 오아시스와 같은 가상현실(VR), 구글 글래스와 같은 증강현실(AR),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에서 현실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접목되는 것과 같은 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기술 용어다. XR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혁신으로 기대되며 주목받고 있다. 우선 애플은 공간 컴퓨팅인 XR을 아이폰으로 시작된 모바일 컴퓨팅을 잇는 새로운 컴퓨팅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두뇌인 AP(Application Processor)를 개발하는 퀄컴도 “스마트폰 다음은 XR”이라며 개발 및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망도 5G부터 스마트폰을 넘어 360도 3차원 콘텐츠 구현이 가능한 XR 구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XR을 스마트폰 다음의 혁신이라고 여기며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정보를 찾아 비교하고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금융 행태 데이터를 통해 금융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 XR이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면, 모바일이 일상과 산업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일상과 금융 산업, 그리고 금융 경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 컴퓨팅은 물리적 금융 경험 그대로 적용되어,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를 없애 줄 것이다**

공간 컴퓨팅은 물리적 금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고객이 XR 기기를 착용하면 마치 실제 은행 지점에 있

는 것처럼 물리적 공간이 구현될 수 있다. 가상 은행원 아바타가 일대일로 고객을 응대하며 금융 상담과 거래를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고객이 XR 기기를 착용하고 “IBK기업은행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고객은 IBK기업은행의 가상 지점 앞에 도착하게 된다. 가상 지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은행 로비의 인테리어가 360도 3D로 생생하게 구현되어 눈 앞에 펼쳐진다. 이때 한 은행원 아바타가 다가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철수 씨가 사업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해 문의하자, 은

공간 컴퓨팅 기술이 가져올  
미래 금융 서비스 경험은 고객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원 아바타는 상담 부스로 안내한다. 부스에 앉은 김철수 씨는 사업체 정보와 필요한 자금량 등을 은행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설명한다. 은행원 아바타는 김철수 씨의 사업장 사진, 재무제표 데이터 등을 공간에 띄우며 IBK의 대출 상품을 추천해 준다.

“네,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고 금리는 연 3.5%입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상환과 만기일시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약정서가 눈앞에 나타난다. 김철수 씨는 가상 펜으로 서명하고,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즉, 가상 공간에서 이뤄진 김철수 씨의 대출 상담 과정은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서 직원과 마주보며 상담하고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제공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프로세스 없이 대화와 간단한 동작만으로 거래가 모두 완결되었다. 이처럼 공간 컴퓨팅 기술이 가져올 미래 금융 서비스 경험은 고객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계좌 개설, 대출, 펀드 투자 등을 할 때 고객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직원과 소통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복잡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배울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बैं킹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360도 3D 인터페이스를 통해 계좌 잔액, 거래 내역,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금융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 경험을 그대로 옮겨와 구현하는 공간 컴퓨팅 기술은 기존 모바일/온라인 बैं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결국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file.**

글. 신동형

원격 기술 아시아 No.1인 알서포트에서 기업 전략관리, 기업-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LG경제연구원 등에서 기업, 기술과 산업 분석은 물론 거시적 관점의 분석과 전략수립론을 익혔다. 저서로는 <이노베이션 3.0>, <변화 너머> 등이 있으며, XIA 진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일상, 사회 경제 변화까지 폭넓게 연구하며 다양한 강연, 보고서, 자문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XIA가 가져올 변화인 공간 컴퓨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금융자산 활용법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만 기준으로 산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는 비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재산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부담도 모두 가입자의 몫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부터 알아야 한다.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보험료 산출 대상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는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대상이다. 전월세 금액은 30%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100%를 반영한다.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전액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면 1,001만 원 전액이 보험료 산출 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를 적용한다. 다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사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연금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 국민연금소득 2,000만 원 X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X 0)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19,780원이고 상한금액은 4,240,710원이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판단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연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 <비과세 금융상품 예시>

종류	가입자격	가입한도	비과세 요건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등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 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ISA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	연간 2,000만 원(5년간 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의무가입</li> <li>-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li> <li>- 서민형 기준 : 총급여액 :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li> <li>-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li> </ul>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포함)	제한 없음	종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li> <li>-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li> <li>- 사망 시 연금지급 종료</li> </ul>
		일시납 1억 원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월 납입 150만 원	계약 후 5년 이상 납입,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조합출자금	조합원	2,0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국민건강보험료 절감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판단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100% 반영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보험료계산 적용방식과 달리 수령하는 연금소득 100%가 반영된다. 이렇게 계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주의할 점은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기혼자라 하더라도 부부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통과한 자의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세 과표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증여공제 6억 원)를 활용하여 재산 규모를 줄여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되는 금융상품

소득과 재산 조정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 산출이 되는 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절감을 할 수도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금융소득이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 상품으로는 65세 이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가져 볼만한 상품은 ISA이다. ISA는 금융소득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고 5년까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연간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서 만약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납입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무납입기간은 3년이다. 가입 3년 이후 해약을 하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



##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로 구분되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한데, 현재 정부에서 복수계좌 가입허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자산의 소득원천을 바꿔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자산 운용 시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가입이므로 가입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지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내의 금액을 받으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한다. 그런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수령액이 현재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나 9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금융자산

운용에 여력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와 ISA를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ISA계좌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Profile.

글. 최문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갖춘 FLP컨설팅 대표로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 제안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의 다양한 칼럼으로 소통하고 있다.

# 100세 시대!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

은퇴 이후의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 재무 설계는 은퇴 시점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그리는 아름다운 은퇴의 밑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퇴를 위한 재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 은퇴 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첫째, 월급 형태의 현금 흐름을 만들 것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은퇴 재무 설계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다. 아무리 수입액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일회성이거나 불규칙적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과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각자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흔히 이 세 가지를 합쳐 '3대 사회보장 장치'라고 부른다. 또 자산의 연금화 상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고, 보유한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 은퇴 재무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둘째, 은퇴 리스크를 예방할 것

은퇴 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위협이 예상되는 은퇴 리스크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녀 리스크.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그리고 무직 자녀 부양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최근에는 손주 양육에 대한 부담까지도 포함한다. 은퇴 전에 자녀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 평균 연령이 49.3세로 대부분 50대에 원치 않는 은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가 은퇴 전 10년과 은퇴 후 5년(통상 50~65세) 기간인 퇴직 레드존(Red Zone)으로 불리는데, 이 기간에는 조기 퇴직 위험, 임금피크 위험, 연금 공백 위험 등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다.

자녀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로와 재정교육에 관심을 두고 함께 충분히 소통하며 위와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를 미리 염두에 두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계 부채 리스크. 은퇴 전에 되도록 털고 가야 할 1순위로 꼽을 수 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거나 없을 수도 있기에 과도한 원금과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되도록 퇴직 레드존에는 추가 부채는 없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부채도 최우선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창업 리스크. 은퇴자들의 재취업 시장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결국 꿈을 안고 자영업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철저한 준비와 조달 가능 범위 내에서 창업에 성공하면 노후 생활 자금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 5년 안에 폐업하는 폐업률이 8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 등 철저한 준비는 절대적이다. 창업 자금도 동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소유 자산의 50% 이상은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금융사기 리스크다. 금융사기의 유형은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메신저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이 있으며 유형과 방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장 협박, 애경사 문자 링크를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있는 금융 정보를 다 털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하는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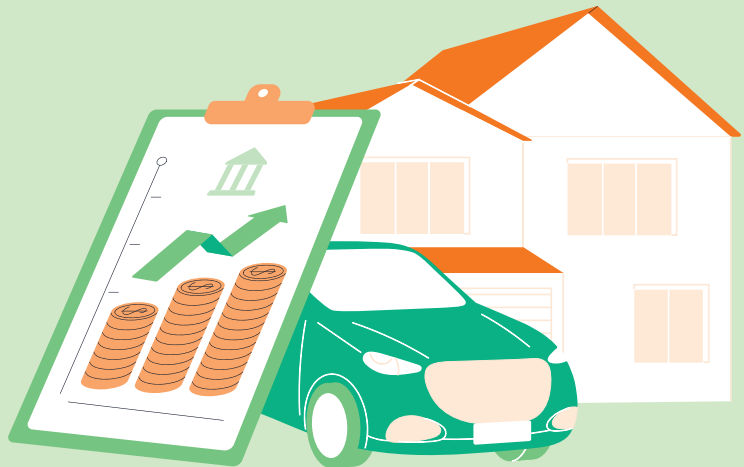
문제는 60대 이상이 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당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순간적인 유혹이나 두려운 감정으로 조금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노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

노후 자산 구축은 가장 먼저 연금으로 매달 월급처럼 나올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며 부족한 자금은 현금을 포함한 금융상품(저축성, 투자성)과 보험(저축성, 보장성) 그리고 부동산(임대 수익, 투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충당한다. 투자할 때도 최소한 생활비의 70%는 고정하고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또 안전한 곳에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소액으로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를 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은퇴 후 자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건강할 때  
마음껏 즐기자는 것**

돈을 무조건 많이 모으거나 약착같이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 번뿐인 삶에서의 '풍요로운 인생 후반을 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마련되면 평소에 가고 싶던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면서 즐기는 것도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사는 지혜라 할 수 있다.



**Profile.**

글. 정재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MBA를 졸업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교수 및 컨설턴트, 삼성전자, LG, 아모레퍼시픽 등 200개 기업 고문, 컨설팅, 코칭을 담당했다. 현재는 한국비전진흥원 원장 (주)E&C 대표이사 및 청운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행복한 노후 매뉴얼>, <평생교육 평생현역>, <코칭리더십 실천노트> 등이 있다.

지금 먹어야 제격!  
스스로를 보살피는 한 끼







# *Peach*

우리는 언제나 때맞춰 온 것을 반기고 누린다. 봄의 절기를 매듭짓고 여름의 절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어떤 제철을 마주하게 될까. 지금을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제철 레시피를 소개한다.



### 여름을 깨우는 달큰하고 향긋한 복숭아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여름 대표 과일 복숭아는 천도와 황도, 백도 크게 세 가지 품종으로 나뉘는데 그 맛이 조금씩 달라 먹는 재미와 고르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복숭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네는 질문이 “딱복(딱딱한 복숭아)이 좋으세요? 물복(물렁한 복숭아)이 좋으세요?”다. 품종에 대한 호불호는 크지 않지만, 딱복과 물복에 대한 좋고 싫음은 수학 공식만큼이나 명확하다. 하지만 복숭아의 단단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복숭아의 효능 아닐까? 천도복숭아는 장 기능에 효과적인 펙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 등을 외부로 배출시켜 장 건강을 강화시킨다. 황도는 다른 품종에 비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질환과 암을 예방하는데,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백도는 비타민C가 풍부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며 노화 방지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건강에 이로운 복숭아를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단맛이 약해지므로 1~5°C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복숭아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감싸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Tip**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방법 ~~~~~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고 만졌을 때 말랑한 것이 당도가 높다. 황도는 전체적으로 황색이 고르거나 타나며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백도는 표면이 붉고 상큼한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다.



### 반짝이는 자연을 그대로 담은 자두

새콤달콤한 자두가 제철을 맞았다. 새빨강계 익은 자두는 맛뿐만 아니라 효능도 탁월한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두는 당뇨를 다스리며 체내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열독과 치통 등에도 효과적이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풍부해 면역 시스템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이면 찌는 듯한 더위로 입맛이 사라지기 일쑤다. 하지만 자두의 새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은 떨어진 식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또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탄력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국내에서 자두는 보통 생과일로 많이 섭취하지만, 외국에서는 자두를 말려 간식처럼 섭취하고 있다. 건자두로 섭취할 경우, 자두의 식이섬유가 극대화되어 변비에 특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자두 섭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 및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옥살산염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나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두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살짝 말랐던 것을 고른 뒤 베이킹 소다와 식초 물로 소독한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Tip** **옹골찬 자두 고르는 방법** ~~~~~  
 자두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살짝 단단하고 끝이 뾰족한 것,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하트 모양인 것을 고르는 게 좋다. 완전히 익은 것보다는 노란색과 연두색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당도가 더 높다.



산뜻한 맛이 입안 가득  
복숭아 샐러드



RECIPE

- 요리 시간** 15분
- 재료** 복숭아, 모차렐라 치즈, 적양파, 루꼴라, 발사믹 식초, 허브
- 만드는 법**
- ① 복숭아를 잘라 마른 팬에 구워주세요.
  - ② 손으로 찢은 모차렐라 치즈와 채 썬 적양파, 루꼴라를 준비해주세요.
  - ③ 볼에 복숭아와 ②를 넣고 발사믹 식초를 넣고 섞어주세요.
  - ④ 그릇에 샐러드를 담고 향긋한 허브를 올려주세요.

Tip!

조금 더 감칠맛을 원한다면 와인식초를 뿌려주세요.



달콤한 여름을 선물하는  
자두 샤베트



R E C I P E

- 요리 시간** 30분 \*냉동 시간 제외
- 재료** 자두 4개, 우유 200ml, 각얼음 10개, 피스타치오
- 만드는 법**
- ① 준비한 자두를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 ② 과육은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1/4 크기로 잘라주고 씨를 제거해주세요.
  - ③ 믹서기에 자두를 넣고 갈아주세요.
  - ④ 적당량의 물과 얼음, 우유를 채우고 잘 섞어주세요.
  - ⑤ 잘 섞은 후 밀폐 용기에 담아 약 2~3시간 얼려주세요.
  - ⑥ 2~3시간 후 살짝 얼어있는 샤베트를 포크나 스푼으로 긁어준 후 다시 2~3시간 얼린 후 그릇에 담아 피스타치오를 뿌려주면 완성.

Tip!

기호에 따라 꿀과 올리고당을 첨가하면 더 달콤한 샤베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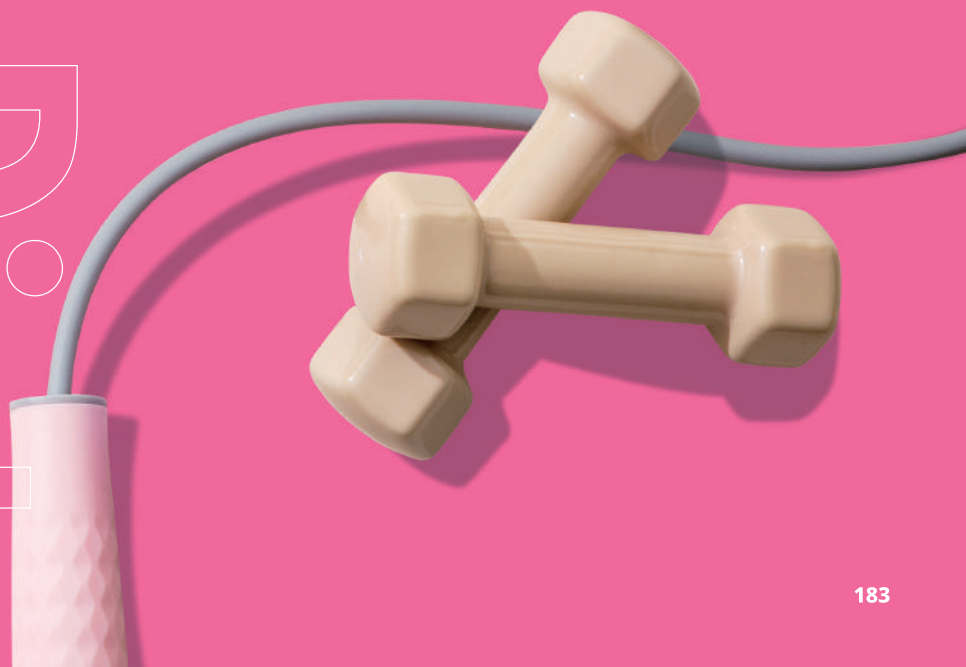
## 다이어트의 변천사

### 더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트렌드

살찌는 건 너무 쉽고, 살 빼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인류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다이어트는 어려운 만큼 시대별로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이 나타났고, 요즘은 MZ세대에서 '혈당 관리 다이어트'가 인기다. 모든 세대가 귀 기울일만한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에 관하여.



# Healthier Diet



## 시대별 다이어트 변천사

많은 사람의 새해 목표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 새해 목표뿐만 아니라 1년 내 내 다이어트를 하는 ‘연중 다이어터’도 많고,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다짐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서 힐링, 웰니스에 관한 관심 증가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는 인류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다이어트도 시대별로 유행을 타고 있다. 약 10년 전인 2012~2013년에는 일본의 의학박사 겸 <1일 1식> 저자로 알려진 나구모 요시노리에 의해 1일 1식 다이어트가 유행이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다이어트로, 배고플 때 나오는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활성화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나구모 박사의 주장이 당시 ‘식사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2016~2017년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인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식사할 때 지방은 70~75%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5~10%로 줄인 다이어트 방식이다. 당시 삼겹살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에 다이어터들에게 환호받으며 삼겹살, 버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9~2020년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이었다. 공복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식습관 개선을 통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본다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점에서도 많은  
다이어터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인 다이어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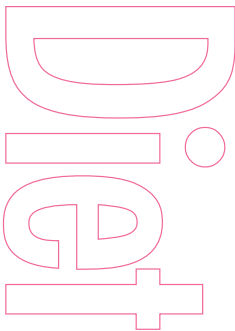
이외에도 원푸드 다이어트, 단백질만 섭취하는 황제 다이어트, 해독주스, 연예인의 이름을 딴 다이어트 등 매스컴 발달의 영향으로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이 시대별로 유행을 탔다.

### 요즘 다이어트, 식사 순서 다이어트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일까?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식사 순서 다이어트. 말 그대로 식사할 때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식이섬유 → 단백질 →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식사 순서 다이어트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식사량 줄이기는 어려운 ‘요즘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무리하게 굶거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본다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점에서도 많은 다이어터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식이섬유 → 단백질 →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식사 순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 잡기’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혈당의 상승을 의미한다. 혈당 스파이크는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다이어트에도 큰 적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지속해서 겪으면 체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그럼 지방이 연소 되지 않아 체중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이어트 시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식사 때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는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뒤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중





에 먹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 혈당 상승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또 다른 이유는 브로콜리, 당근, 미역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거친 식감으로 오랫동안 씹게 되는데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포만감을 더욱 빨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 중에서도 낱것 → 호소 순으로 먹는 것이 좋고, 단백질은 식물성 → 동물성 순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사량 조절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과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 혈당 관리에 꽃힌 MZ세대

식사 순서 다이어트와 같은 일환으로 MZ세대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혈당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일명 ‘GCM 다이어트’다. GCM은 연속 혈당 측정기로 본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기기다. 이 기기를 착용하면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 당뇨병이 없는 MZ세대도 이

# Trend

기기를 착용해 본인이 섭취한 음식이 혈당이 크게 오르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GCM 다이어트다.

또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전현무가 소개한 혈당 관리 다이어트 방법인 ‘애플사이다비니거 다이어트’도 인기다. 일명 ‘애사비 다이어트’로 불리는 이 다이어트는 사과 식초를 이용한 다이어트로 사과 속 자연 발효를 거쳐 생겨나는 ‘아세트산’ 물질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만드는 소화 효소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방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혈당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으로 알고 있는 땅콩버터도 땅콩 속 불포화 지방산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효과가 입증돼 다이어트를 위해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져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다이어트를 위해 모인 사람들끼리 자신의 식단을 공유하고 인증하는 카톡방이 인기며, 저당 도시락, 저당 아이스크림, 저당 케첩 등 혈당 관리 식단을 서로 공유하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유하는 추세다.

##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뇨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다이어트 목적으로 GCM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 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애사비 사과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맞지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공복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용량을 잘 지켜 섭취해야 하며, 땅콩버터 또한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요즘 다이어트는 혈당 관리가 포인트다. 혈당 관리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기에 MZ세대뿐만 아니라 혈당, 당뇨, 비만 등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중년 세대에게도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무리 효과가 좋다는 다이어트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되레 몸이 망가지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식으로 운동을 병행하며 느낄지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식단은 그대로 '먹는 순서'만 다르게.. 살 빼는 쉬운 방법, 헬스조선, 2019. 02. 27.

혈당 조절해 살 뺀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법 바로 알기, 중앙일보, 2024.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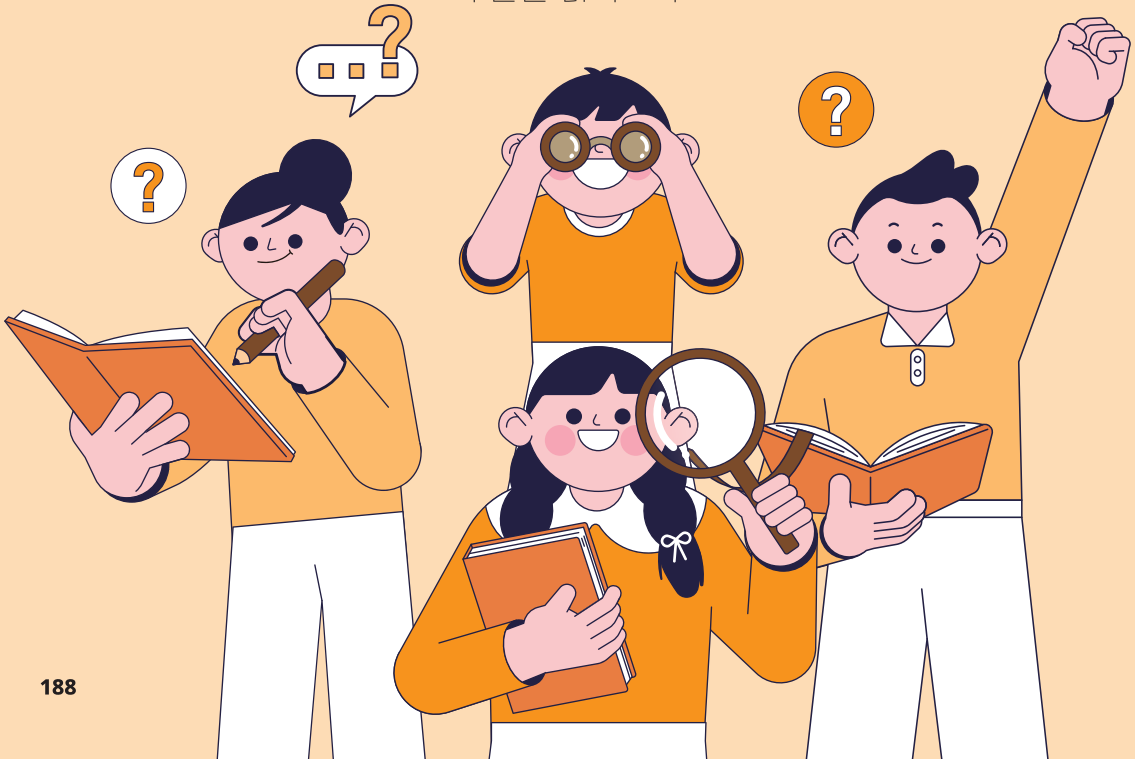
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 땅콩버터 품귀현상까지 빚었다는데, 효과 있을까? 2024 .04.18.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3가지 다이어트, 진짜 효과 있을까? 2024. 05. 14.



여기에 ‘ㅅ’ 들어가는 거  
맞아요?

나뭇잎, 시냇가, 바닷가 등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에는 자음 ‘ㅅ’이 따라붙는다.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지만 가끔 이 자리에  
‘ㅅ’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갈팡질팡한 적 있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인사말**  
VS  
**인삿말**

마지막 말에 된소리가 나오지 않고, 끝말의 첫 모음이 ‘ㄴ, ㄹ’로 이루어져 있어 사이시옷 조건에 해당하는 듯하지만 ‘인사말’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물론, 뒤에 첫 모음이 ‘ㄴ’으로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예문>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을 들겠습니다.

**개수**  
VS  
**갯수**

앞 글자는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수’가 ‘쑤’로 읽히기 때문에 사이시옷 기준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한자어+한자어의 결합으로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수와 갯수가 헷갈린다면 ‘1개, 2개, 3개’로 외워보자.

<예문> 오늘 사 온 사과 개수 좀 알려줄래?

**윗층**  
VS  
**위층**

위층은 고유어+한자어가 합성된 단어로 한글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하지만 뒷말의 첫소리 ‘ㅊ’이 거센소리에 해당하므로 사이시옷을 반영하지 않는다. 아래층도 마찬가지로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 위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다.

**해님**  
VS  
**햇님**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올바른 표현이다. 합쳐지는 낱말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낱말’일 경우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해’의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님’은 접미사로 쓰인다.

<예문> 해님이 너무나도 반짝이네요.

**우유 빛깔**  
VS  
**우윳빛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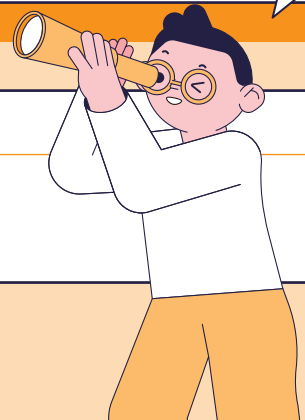
누군가를 응원할 때 ‘우유빛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를 하나의 낱말로 본다면 ‘빛’이 ‘뽀’으로 발음되므로 ‘우윳빛깔’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우유와 빛깔이 합쳐진 단어이기에 ‘우유 빛깔’로 띄어 써야 올바른 표기다.

<예문> 우유 빛깔 피부를 원한다면 이 세안법을 따라 하세요.



**Tip! 사이시옷 조건 3가지**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인 경우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의 소리가 덧나는 경우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으로 소리가 덧나는 경우



# 기계거래가 어렵다고요? 천만에! 「기계거래BOX」와 함께 하세요



기계·설비 처분, 매입 지원을 위한 IBK만의 기계거래 전문 플랫폼이 출시됐다. 개인, 기업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비용 없이 무료로 중개서비스부터 금융서비스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 「누구나」

- 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기업 누구나 이용
- 등록된 매물탐색은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판매등록 등 플랫폼 세부 기능은 'IBK BOX' 회원가입 필요



## 「쉽고 편하게」

- 직관적인 용어와 이미지 활용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첫 화면에서 확인하고, 태그를 통한 검색 편의성 제공
- ※ 매물 등록 시, 제품의 용도나 별칭 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무료로」

- 이용, 중개 등 플랫폼 서비스를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제공
- 비용 부담 없는 손쉬운 거래지원으로 온라인 동산시장 활성화
- 관련 기업의 기계·설비 매입, 매각 필요시 홍보 채널로도 활용 가능

### Tip BOX 「기계거래BOX」의 새로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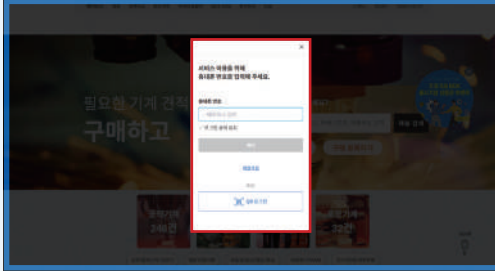
#### 대출신청

- 1 구매희망 물건에 대해 플랫폼 연계(인터넷, 모바일) 대출신청 가능
- 2 고객이 원하는 영업점 배정을 통한 정확한 대출심사 진행

# 「기계거래BOX」 처음이신가요?

## 1. 판매/구매 등록하기

### ① 「IBK BOX」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거래등록 선택



### ③ 거래등록 정보 입력(※: 필수입력)



1. 제품 기본정보
2. 제품 상세정보

### ④ 판매자 정보 입력



## 2. 거래목록 살펴보고, 구매하기

### ① 검색필터 설정(종류/가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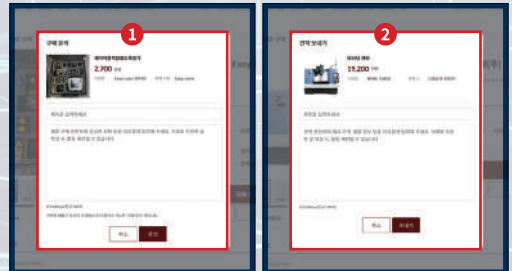
1. 메인페이지 접속 후 상단 '거래목록' 클릭
2. 등록된 기계의 종류 / 가격 / 지역별 필터 설정 가능
3. 목록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상세 페이지



1. 판매자가 제공 가능한 관련서비스 확인
2. 구매문의 / 찜(마이페이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

### ③ 문의



1. 구매문의(판매 건)
2. 견적송부(구매 건)



직접  
접속



BOX 접속  
> 상단부  
'기계 거래' 터치

# IBK NEWS

01

## 김성태 은행장, 성남산업단지 방문

김성태 은행장은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금융지원과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성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 하이콘을 방문했다. 하이콘은 반도체 검사장비인 테스트 소켓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밸류 체인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시설투자와 R&D 자금 지원 외에도 M&A 중개·주선, 벤처 대출 등 중소기업 전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 강동 지역을 방문해 생생한 영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 광주·성남 지역의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 나갔다.



02

##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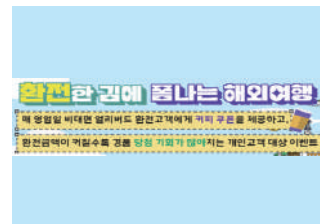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수신 여건 강화 ▲상담 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현재 IBK고객센터는 수신 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평균 약 3만 5천 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03

## ‘환전한 김에 푸나는 해외여행’ 이벤트 실시

주요 통화 환전 고객에 최대 90% 환율 우대와 다양한 경품 및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환전한 김에 푸나는 해외여행’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영업점 방문 또는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i-ONE뱅크’ 내 ‘ONE할 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USD, EUR를 건당 미화 환산 500달러 이상 현찰로 환전한 개인 고객이다. 이와 관련, ‘ONE할 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벤트 대상 고객에게 90% 환율 우대와 신라인터넷 면세점 S. Rewards 및 하나투어 해외호텔 5%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환전 고객 20명(이벤트 기간 총 194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04

**상속설계 신상품  
‘유언대용신탁’ 출시**

고객의 상속자산에 대한 1:1 맞춤 설계가 가능한 상속설계 신상품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 및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객 맞춤형 상속설계는 물론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05

**글로벌 ESG 활동 위해  
임직원 자원봉사단 파견**

글로벌 ESG 활동을 위해 베트남과 몽골에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 200여 명으로 구성된 IBK금융그룹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사단법인 코피온과 함께 베트남 하이즈영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집짓기,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에 1,200여 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학교 신축 및 시설 보수, 아동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ESG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6

**‘소통포차’ 열고  
직원들과 소통 실시**

5월 21일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해 기업은행 본점 인근의 한 맥주집에서 김성태 은행장과 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EO와 함께하는 소통포차’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내 가족, 동호회 회원, 동료직원 등 다양한 ‘IBK가족’의 사연을 신청받아 진행됐다. 김성태 은행장은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원들과의 공감소통을 위해 김성태 행장은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및 직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이어가고 있다.



# 다른 그림 찾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른 그림 찾기!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위의 두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참여 기간** 2024년 6월 1일~6월 20일  
**참여 방법** QR코드로 로그인해 다른 곳을 표시한 사진과 개인  
정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024년 6월 25일

##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발표!



심0만 (3\*\*0) 육0태 (9\*\*7) 고0채 (3\*\*5)  
이0진 (9\*\*6) 권0희 (7\*\*2)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with IBK>

#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6월 1일~6월 20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촬영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6월 25일



## <with IBK> 에서 ‘표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가합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6월호 속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발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4곳\_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 참여방법

STEP1. <with IBK>에 숨어 있는 표지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총 4곳, 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STEP2. 캐릭터를 찾은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STEP3. 상단 QR코드 접속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뒷면에  
가장 내 약취 제거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를 써 내려가는 종기와 같습니다.

모두가 감탄할 시를 쓰고 싶다면  
정형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보세요.

가슴 속에 품은 상상을 계속 쌓아 올린다면  
성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음.. 살려줘..

## 집안 곳곳 숨어있는 불쾌한 냄새를 잡아라!

여름을 맞아 대청소 및 환기를 해도 겨우내 케케묵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악취 제거 방법입니다.

### 정리 편집실

#### 요리할 때마다 여닫는 냉장고

- 1. 반찬 뚜껑+행주**  
행주로 반찬 뚜껑과 고무 패킹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 주세요.
- 2. 채소, 과일+지퍼백**  
채소와 과일은 지퍼백에 담아 무게별로  
보관해주세요.
- 3. 커피 캡슐+컵**  
다 쓴 커피 캡슐을 컵에 담아  
냉장고 깊숙이 넣어주세요.
- 4. 물+구연산**  
물 1컵과 구연산 2작은술을 냉동고에  
얼려주세요.

#### 집의 첫인상은 신발장에서부터

- 1. 신발장+선풍기**  
신발장 앞에 선풍기를 뒤  
바람을 쐬어 주세요.
- 2. 젖은 신발+베란다**  
비에 젖은 신발은 베란다에서 말린 후  
수납해주세요.
- 3. 보냉제+신발장**  
냉동식품을 살 때 온 보냉제를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 4. 신문지+신발**  
잘 안 신는 신발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주세요.

#### 요리는 깨끗한 싱크대에서

- 1. 식초+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2스푼을 배수구망에 뿌리고 종이  
컵 반 분량의 식초를 부어주세요.(10분간 방치)
- 2. 끓은 소금+뜨거운 물**  
끓은 소금을 배수구에 뿌린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 3. 스타킹+십 원 5개**  
스타킹에 십 원짜리 5개를 넣어  
거름통에 매달아주세요.
- 4. 감자껍질**  
식재료로 쓰고 남은 감자껍질로  
거름망을 닦아주세요.

#### 산뜻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

- 1. 세탁기+식초**  
수건을 세탁할 때 세제 통에  
식초 두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 2. 변기+콜라**  
콜라를 변기에 뿌리고 솔로 살살  
문질러주세요.(30분 방치)
- 3. 열린 문+탈취제**  
목욕 후 화장실 문을 열어 환기하고  
변기 위에 탈취제를 비치해주세요.
- 4. 뜨거운 물+레몬즙+소금**  
끓인 물과 레몬즙, 소금을 3:1:1 비율로  
섞은 후 배수구에 부어주세요.(40분 방치)



IBK 기업은행

금융의 본질  
리사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재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증개 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문의하시면 상의팀 ☎2023-35768000 또는 18330 유류기☎024406731 • 금융실명권명 개명/계좌이체/잔액 신용(사채)신상명세서 및 위변조 방지 등 권익(기, 사, 파, 파, 파) • IBK 기업은행은 금융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면 어떤 사안도 내 책임이 없으며 불리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5-7400 e-mail: bcoethis@ibk.co.kr

